



엠마 크뢰벨이 본
대한제국
황실이야기

지음 엠마 크뢰벨
옮김 윤용선 · 최용찬
감수 · 해제 · 주석 서영희



조선 Korea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내가 조선과 조선의 황실에 체류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 그렇게 말하고 싶다. 하루는 남편이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초청을 내게 전했는데, 그녀는 수년 동안 조선 황실에서 특별한 관리직에 임명된 손탁Sontag 양이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그 여성의 방문요청에 나는 기꺼이 응했다. 그녀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 집에서의 체류는 기분을 전환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수께끼 같은 나라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기대에 부풀어 여행길에 올랐다. 훗날 1908년 봄, 남해 섬으로 학술탐사를 갈 때 인솔자인 뮐레보른 Fülleborn 교수와 파젤R. Vahsel 선장과 함께 탔던 기선 ‘파이호Peiho’ 호가 1905년 8월 나를 조선으로 데려다주기로 되어 있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나라가 스스로 붙인⁴ 이 명칭은 웬지 자기풍자 *Selbstironie*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고요함과 거리가 멀고, 그 명칭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 고요함을 즐기기는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선을 지배하는 고요함은 폭풍전야와 아주 흡사하다. 조선은 본질적으로 특별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반도의 면적은 영국과 거의 비슷하며, 3국 이상의 열강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 그로 인해 이들 열강은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것이 한반도가 처해있는 국제정치적 상황이다.

조선의 지리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북서쪽에는 압록강이 중국의 바툽Ba-Tung 및 만주와 국경을 이루며, 북동쪽에서는 두만강이 24km에 걸쳐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국경을 형성하고 있다. 동쪽에는 동해가, 서쪽에는 서해가, 남쪽에는 남해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조선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로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이웃 나라 조선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세 제국은 실제로 조선에 대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교대로 지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보호령 체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항상 불안과 음모와 계략만을 가져왔고, 이것은 나중에 공개적인 적대 행위로 발전하였다.

4 조선에 대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최초의 미국 방문 외교사절단인 보빙사를 안내한 미국인 Percival Lowell(1855~1916)이 1885년 Chosŏ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a Sketch of Korea 를 출간한데서부터 유래한다. 영국의 화가이자 탐험가인 새비지 랜도어(A. Henry Savage-Landor, 1865~1924)도 조선을 여행한 후 1895년 Coreā or Chō-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이후로 서양인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을 지칭하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굳어졌으며 한국인들 스스로 붙인 명칭은 아니다.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세 열강의 다툼은 아마도 동아시아 문제에 유혈이나 무혈의 방식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비로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누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동아시아에 체류하는 유럽인이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없다. 이들은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갖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데, 조선 황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교역관계, 철도건설 및 광산개발 허가를 받아내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유럽인의 이러한 바람이 그저 희망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현될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당분간은 일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러일전쟁 이전에도 상당했고, 현재는 이보다 많이 증가했다. 일본의 대 조선 교역은 유럽 전체와의 교역량보다 크며, 이런 현상은 조선이 러시아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전쟁 이전부터 존재했다. 물론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위치를 중요하게 만든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일본 함대는 다른 열강에 비해 한반도의 연안 지역을 훨씬 쉽게 장악할 수 있으며, 일본은 본국과의 접촉이 단절되는 위험 부담 없이 조선에 자국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 구실을 한 조선은 자신의 특성을 이웃 강대국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보존하고 간직할 줄 안다. 백인종이 돈벌이에 대한 예민한 후각과 욕망으로 지구촌에서 그들의 손을 타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그것은 더욱 놀라울 뿐이다. 조선은 티베트 다음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유럽의 문화 개척자들이 가장 연구하지 않은 나라로 남아있다.

25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은 미개한 상태에 있었다. 1882년 이 나라를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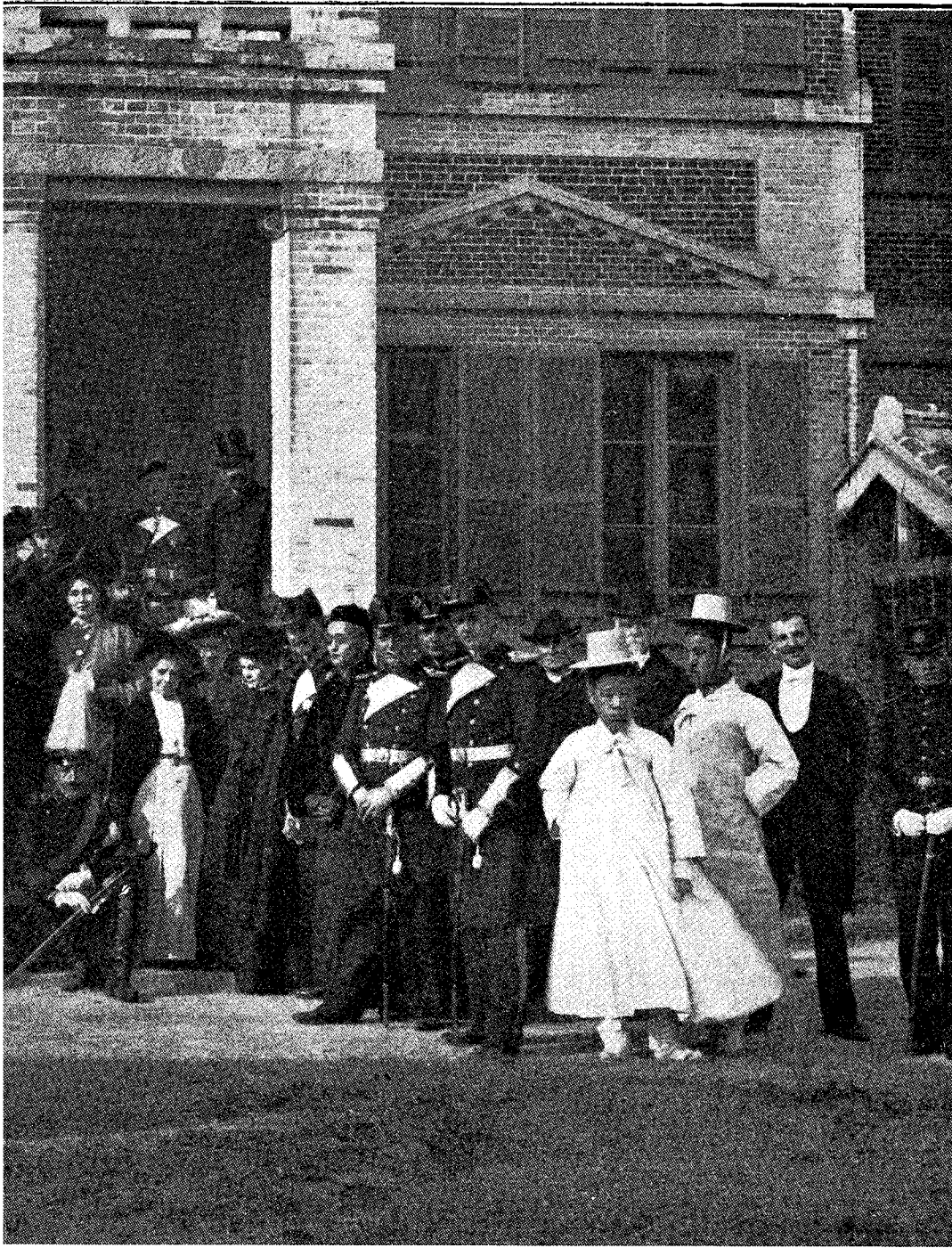


그림 18. 독일 공사 관저에 온 장갑순양함 '비스마르크 총통' 호 장교단

문한 사람은 서구의 야만인들을 죽이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비석⁵을 봤을 것이다. 당시에는 왕조차 자신의 진보적인 사상의 희생자가 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바로 그해에 외국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완전히 무지함 속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은 이에 완강하게 저항했다. 조선에서 속박의 굴레를 타파하고 미개한 전통 관습을 일소한 것은 미국의 공로였다.

당시 미국의 셔필드⁶Sheffield 선장은 정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조선의 왕과 친선조약을 체결했는데, 조약은 미국인과 미국 선박의 입국 및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조약을 체결했으며, 그 결과 1883년에 세 개의 항구인 제물포, 부산, 원산 등이 개항되었고, 이어서 미국과 조선의 조약 체결을 통해 1897년과 1899년에 계속해서 5개 항구가 열렸다.⁷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며 이방인에 대한 모든 편견으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킨 폭풍우와 같았다.

물론 새로운 시대에 앞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는 1882년 7월 23일 외국인을 극도로 혐오했던 대원군에 의한 유혈사태로 나타났다.⁸ 건장한 병정들을 앞세워 궁을 점령한 뒤 정부를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한 대원군은 일본

군과 외국인을 몰아냈다. 사태는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왕비를 살해하려 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소문은 왕비도 살해되었다고 믿게 했다. 애도하라는 분부가 공식적으로 내려질 정도였으나, 얼마 안 있어 왕비는 죽지 않았고 은신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왕비를 보위하는 홍재희⁹洪在義는 혁명이 있던 날 밤, 왕비를 등에 업고 봉기를 일으킨 병사들 사이를 뚫고 빠져나갔다. 병사들이 앞길을 막자, ‘등에 업힌 사람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왕비는 친구의 집으로 피신해서 다시 평온해지고 질서가 잡힐 때까지 무사할 수 있었다.

조선 왕의 밀사로 텐진에 머물던 김윤식¹⁰金允植과 어윤중¹¹魚允中이 이홍장¹²李鴻章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는 즉각 군대와 함대를 조선에 파견했다. 청나라 군대는 조선의 수도이자 왕궁이 소재한 서울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남양¹³南陽에 상륙했고, 이홍장은 서울에 주둔했다.¹⁴ 다음 날 아침 청나라 장군이 대원군을 찾아 왔으나 대원군은 이튿날 방문을 허락했다. 대원군은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고 하인들과 함께 삼엄한 경비 속에서 남양으로 가 그곳에서 청나라로 끌려갔다. 청나라 장군 오장경¹⁵吳長慶은 이튿날 서울에 벽보를 붙여 대원군이 왕비의 살인자로 고발되었으며, 황제의 심문을 받기 위해 청나라로 끌

5 1871년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첩화비를 세우고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패국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고 새겼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된 후 일본공사의 요구로 모두 철거되었는데, 본문 내용처럼 “서구의 야만인들을 죽이라”는 내용은 없다.

6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슈펠트(Robert W. Shufeldt) 제독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7 개항은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에 따라 1876년 부산, 1880년 원산, 1883년 제물포(인천) 순서로 실시되었고, 1897년 목포, 1899년 군산 개항은 미국의 요구가 아닌 대한제국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8 임오군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오군란은 구식군인들의 봉기로, 구식군인들이 대원군을 추대한 것이지만 대원군이 추도한 것은 아니다.

9 홍재희, 일명 홍계훈(洪啓薰)은 임오군란 당시 무예별감으로서 명성황후를 구출한 공로로 장위영영관으로 등용되었고,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양호초토사로 임명되어 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1895년 을미사변 때는 훈련대장으로서 광화문을 수비하다가 일본군에게 피살되었다.

10 현재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11 1882년 임오군란 발발 당시 텐진에 있던 김윤식과 어윤중은 이홍장이 아니라 주복(周馥)을 만나 파병을 요청하였고, 청은 북양함대 제독 정여창(丁汝昌)에게 군함 3척을 이끌고 마건충(馬建忠)과 함께 선발대로 조선에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군란 진압을 위해 오장경(吳長慶)이 이끄는 3000명의 군사가 남양만 마산포에 도착하였고, 정여창, 오장경 등은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와 대원군을 납치하였다. 이홍장은 서울에 오지 않았다.

려갔음을 알렸다. 청나라 법정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텐진 근처로 유배를 보내 그곳에서 5년간 머문 뒤 돌아가도록 했다. 당시 청나라에서의 체류로 그는 눈을 뜨게 되었다. 그는 조선이 외국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나 왕비를 향한 증오는 마음속에서 계속 커져만 갔다.



조선 땅에서

내가 조선으로 떠난 것은 8월이었다. 조선 땅이 시야에 들어오기 전에, 배는 여러 시간 동안 그림같이 아름다운 수많은 섬을 지나갔다. 섬들은 배의 운항에 항상 위험이 되었지만, 여행자의 눈에는 호사가 되었다. 이 수많은 섬들은 남해안과 서해안 전체에 걸쳐 육지를 따라서 펼쳐졌다.

우리가 항해하는 동안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어둡게 드리웠다. 바람 한 점 없고, 햇빛은 두꺼운 운해를 뚫지 못했다. 수많은 섬이 뿜내는 울창한 녹음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점들이 보였는데, 그것은 소 떼와 함께 있는 하얀 옷을 입은 목동들이었다. 그들은 절해의 고도에서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표시였다.

기선에 어림사리 지나갈 길을 내주는 군도群島는 끝없이 펼쳐졌다. 해안에 다 왔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실망하고 다시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했다. 대부분 일본 해도에 표기된 수로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배들은 제물포항에 배를 댈 수 없었다. 서해의 북쪽에 있는 세 개의 만(보하이, 랴오둥, 조선)에 부딪힌 해류가 반도의 중서부 해안으로 역류하고, 한강 하구 앞에 난립한 섬 때문에 발생하는 조수간만의 차는 다른 바다에서 흔히 보는 것보

다 훨씬 커서 모든 것을 물에 잠기게 했다. 그러나 썰물 때는 넓은 해안이 땅을 드러냈다. 그로 인해 소위 항구는 만조에는 아주 그럴듯했다. 멀고도 넓은 해안이 맨땅을 드러내며 고약한 냄새가 나는 해조류가 덮고 있는 해안이 끝없이 펼쳐지고, 중간중간 바위 절벽이 솟아 있었다. 많은 일본과 조선 배들이 진흙 속에 용골을 처박은 채 갇혀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절대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괴상한 배들이었다.

또한, 두 척의 러시아 전함 ‘카레예즈Korietz’ 호와 ‘바라그Warjak’ 호 역시 당시에는 제물포항에 침몰한 채로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해군이 이 배를 공격했고, 러시아 해군은 배를 폭파해야 했다. 현재 두 군함을 다시 인양하고 있다.

만조 시 제물포항의 수심은 8.4m에 달하며, 바람이 불면 10m까지 높아진다. 우리가 탄 기선은 제물포항 입구의 먼바다에 닿을 내려야 했다. 토착민이 탄 여러 척의 보트가 재빠르게 기선을 에워쌌으며, 그들은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기선의 갑판 위로 기어 올라왔다. 그들은 우리 짐을 운반했고 어수선한 소음이 귓전을 울렸다. 여기서 본 사람들은 정말 괴짜들이었다.

제물포는 완전히 유럽 같은 인상이어서 너무 놀라 메모해 놓았다. 녹색 언덕 위에는 일단의 유럽 스타일 주택과 건물들이 서 있었다.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원은 일본 덩굴식물과 관목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넓은 산책로는 건물에 살면서 휴식이 필요해서 산책을 나온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공기를 마시며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는 조국의 삼색기가 걸린 아름다운 건물은 함부르크의 한 도매상 소유로 이곳 해외지사 대표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동아시아를 여행하던 하인리히 왕자가 1899년 6월 이 집에서 묵기도 했다. 당시 이 건물에 지점을 갖고 있던 마이어사E. Meyer & Co.는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과 대규모

로 교역하던 유일한 독일 회사였다. 그 회사는 심지어 조선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약 260 제곱마일에 이르는 채광 구역을 살살이 뒤질 수 있는 권리를 얻기도 했다. 채광구역으로 강원도 금성^{金城}이 선택되었다. 같은 시기에 러시아 회사도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두만강에서 이와 유사한 허가를 받았다. 당시는 외국인에게 허가를 잘 내주는 분위기였으며, 덕분에 서울에서 만주 국경 지역인 의주까지 철도를 부설하려 했던 프랑스까지도 동의와 약속을 얻어냈었다.

영국은 허가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강력하게 중개에 나서자, 영국 회사에도 여러 복잡한 조항과 제한이 포함된 상당히 중요한 특혜가 주어졌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일본으로 그들에게는 감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으나, 일본 민족 특유의 집요함으로 이를 제거하고 마침내 부산과 조선의 수도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약 25마일에 달하는 제물포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은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이 사업권을 따낼 경우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투입해야 할 자본이 마련되지 않아 허가권을 매입할 투자자를 계속 찾았다. 그러자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이 사업에 투자할 100만 엔이 준비되었던 한 일본 투자자가 재빨리 뛰어들었다. 결국, 일본이 한반도 전체 개발의 발단이 된 이 철도 사업의 주인이 되었다.

일본 사업자는 이 철도 건설을 통해 제물포 개발을 선점할 유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기회가 대단한 것이었음은 나중에야 비로소 밝혀졌다. 서구와 유럽으로부터 엔진과 상하이를 거쳐 들어오는 모든 상품과 수입품은 이제 제물포를 거쳐 내륙으로 들어와야 했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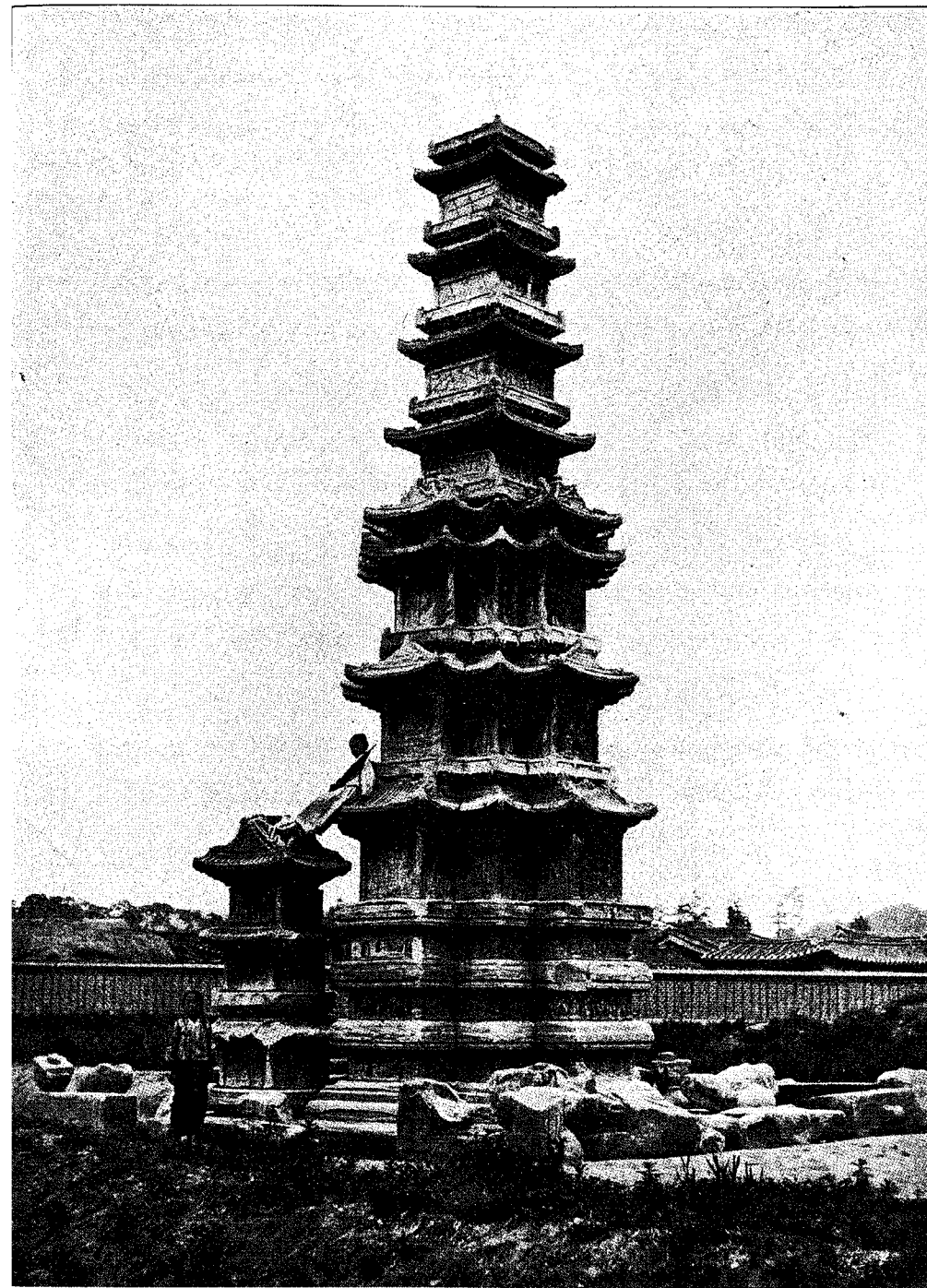


그림 19. 원각사지10층 석탑

품은 수도까지 온 뒤에 비로소 여러 판매망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은 500년 동안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나라의 모든 길이 교차하는 구심점이었으며, 여러 정황상 외국의 지배를 받게 될지 모를 훗날에도 수출은 여전히 이 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사업 허가는 조선이 독립국가였을 때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았다. 특정 강대국에 이익을 보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또 다른 강대국에 유사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광산들 역시 기대했던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원래 계획된 대규모 기계 투입에 대한 기대 또한 충족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보건대, 일본이 수년 전부터 경제 관계에서 조선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제물포를 전부터 알고 있던 외국인은 이 항구가 놀랄 만큼 발전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일본이 빈곤하고 불결했던 어촌마을을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도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짧은 기간에 탈바꿈시켰다고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좋았으며 정부의 치안 유지도 훌륭해서 공공 안전이 보장되었다. 중요한 교역의 장인 제물포가 번영하게 된 데에는 독일 외에 일본의 공로가 지대했다. 제물포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잠시 쉬 뒤 서울로 향했다. 나의 기나긴 여정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조선의 수도 서울

제물포에서 경기도 안에 있는 수도 서울까지는 기차로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수도의 이름을 쓰는 법이나 발음을 둘러싸고 학자와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데, 논란은 그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상책일 듯싶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안에 있는 서울은 아름답고 독특했다. 조선은 산의 나라로, ‘산 위에는 산뿐 인 San way yun san pool chin.’¹²이라는 격언으로 예찬할 정도이다. 정말 수도로 가는 길은 산 넘어 산이었다. 그곳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흔하게 받는 질문은 “당신의 나라에도 여기처럼 산이 많나요?”이다.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다시 나가는 길은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북한산과 남산이라는 높은 산이 도시를 남과 북으로 나눈다. 남산은 도시 위로 약 1,000피트 정도 솟아 있어, 남산 꼭대기에 오르면 감쪽 놀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삼면으로 커다란 산들이 지평선을 향해 뻗어있으며 나머지 한 면에는 수도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지난다. 산자락에 바짝 붙어 가옥의 행렬이 뻗어 있는데, 산자락과 너무 가까운 나머지 집의 뒤편은 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높이가 6m에 길이가 20km에 달하는 거대한 성벽은 도시의 방어 기능을 수행하며 사방을 둘러싼 산을 따라 축조되었다. 성벽에는 8개 이상의 대문이 통로 역할을 하고 대문을 통과하면 석교^{石橋}가 도시의 경계를 지나 안으로 인도한다. 이 대문들은 중국 스타일의 누각으로 위를 장식했고 도시성벽을 따라 군데군데에 설치되어 성벽을 끊어 놓았다.

성벽은 수 세기 전에 축조되었는데, 1392년에 처음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 왕조의 창시자인 태조의 통치 시기에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성벽의 복원과 수리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는지 성벽은 점차 무너졌고 18세기 중엽에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1866년 프랑스의 침략이

12 한국어 발음을 불명확하게 옮겨 놓았기 때문에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문장을 예찬이라고 서술한 크뢰벨의 이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있을 때까지는 충분한 보수가 이루어져 마치 새로 축조된 것처럼 되었다.

남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저만치 아래에 집들이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집들은 산과 산 사이의 평지 전체를 덮었고, 산 측면에 있는 일부 계곡으로도 흘러들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주택이라기보다 흙으로 지은 작고 낮은 오두막(Lehmhütten)에 가깝다. 지붕은 볏짚이나 목골로 된 구조였고, 하나같이 같은 색이어서 구별이 안 되었다. 유럽인이 지은 몇 안 되는 주거건물과 공공건물을 제외하면—황제의 궁궐들도 빼놓을 수 없다—건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와 달리 각국 대사들은 외부에도 공개하는 호화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선 황실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미 70세가 된 알자스 출신의 손탁 양의 집들은 근대 건축과 유럽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조선의 고관대작이나 궁정관리, 명망가들 중 극히 일부가 제대로 된 저택을 갖고 있었다. 저택은 중국식으로 지어진 커다란 농가와 비슷한데, 높이가 낮은 대신 면적이 매우 넓었다. 그밖에 수도 서울에는 다른 공공건물은 없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인구가 무려 150,000명에 육박하는 도시에 절이나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는 대체로 사찰이 상당히 많고, 외국인에게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놀랍기만 했다. 가옥의 바다 위로 유일하게 솟아오른 사찰 지붕은 황궁 건물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 절은 오로지 숭상 받는 황제만을 위한 것이었다. 백성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물론 이 사찰 건물은 독창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베이징의 유명한 천단(Himmelstempel)을

소박하게 모방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¹³

서울은 전통과 근대의 신문화가 정면으로 부딪치며 대립하는 독특한 사회였다. 한편에는 전통이 자리하고, 다른 한편에는 유럽의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존재했다.

낮은 토담집의 단순한 짚빛 지붕 위에 걸려있는 전선을 보고 있노라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인은 전력을 여러 형태로 이용하는 법을 정말 단기간에 배웠다. 이 점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의 다른 모든 대도시를 제치고 선구적으로 앞서 나갔다. 상하이나 도쿄, 베이징도 서울처럼 전신, 전화, 전깃불, 전차 등을 동시에 갖지는 못했다.

전차로 길고 좁은 지저분한 거리를 지나다가 보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낙후된 독특한 길을 전기 가로등이 밝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거리의 전차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항상 만원인 것을 보면, 조선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진보의 축복을 정말 신속하게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사람이 끄는 이 나라의 교통수단인 인력거를 애용했다. 그러나 이것을 타는 것은 고문이나 진배없었다.

서울에는 단 두 개의 주요 도로가 있었다. 하나는 남북으로 뻗어있었고 다른 하나는 도시의 동서를 연결했다. 두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커다란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 높은 종루가 서 있었다. 안에 있는 종은 지름이 2m, 높이가 3m에 이르며 유럽에는 없는 청동으로 만든 괴물이었다. 이 종은 도시민에게 하루의 여러 시간과 도시민의 삶에 있어 중요한 일과들을 알려주었다. 커다란 타종기로 치면 종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

13 베이징의 천단을 모방한 황제만을 위한 건축물은 아마도 환구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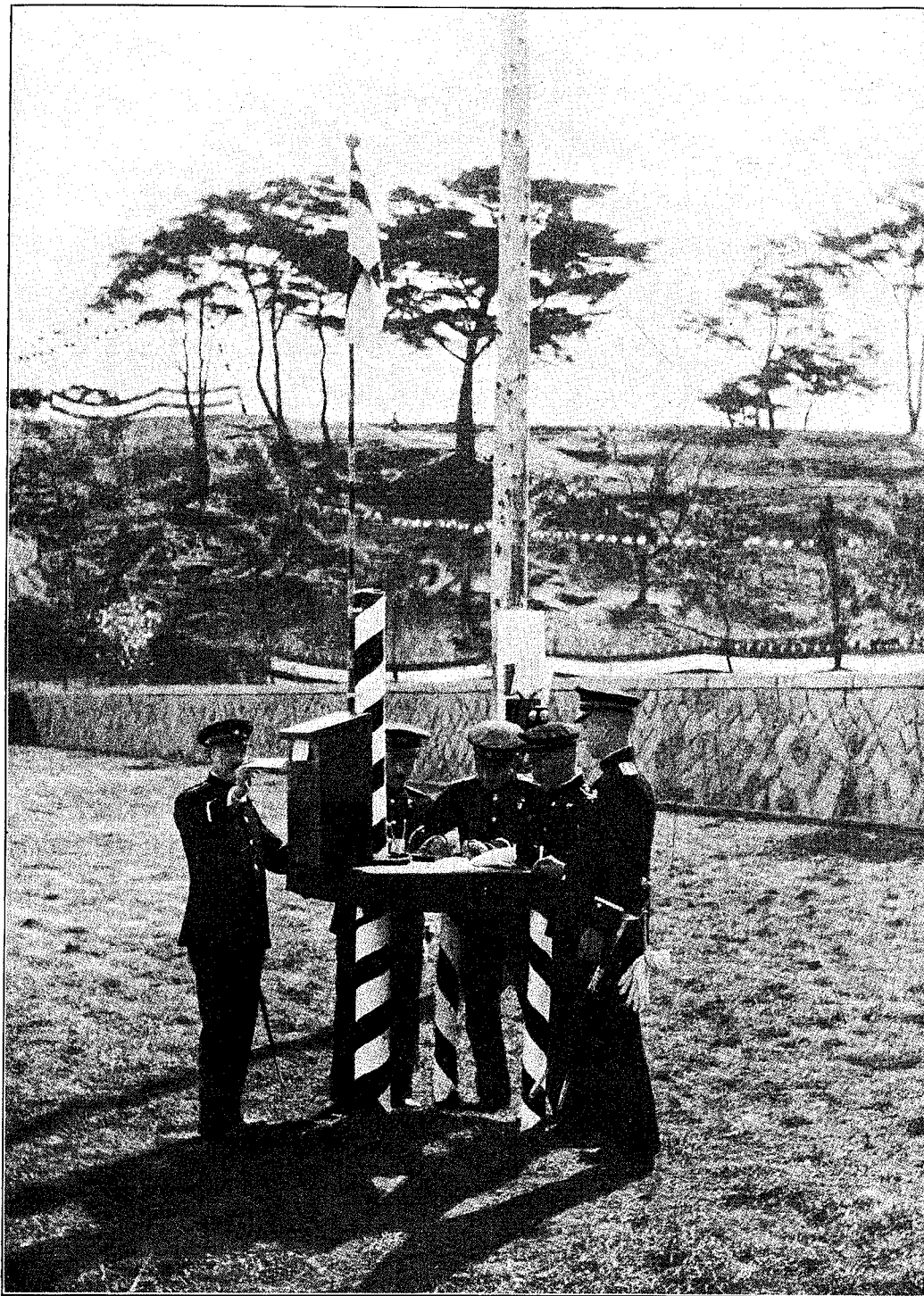


그림 20. 조선에 있는 일본 군사우편소

리와는 전혀 달랐다.

종루를 둘러싼 광장 주변은 인구밀도가 높은 오리엔트나 동아시아의 도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몹시 시끄럽고 분주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서울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경제가 움직였다. 크고 작은 상점과 가게가 있고, 그 안에 모든 물건과 생활필수품들이 쌓여있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서울 아니 조선 전체의 상품 거래소라 할 만했다.

광장의 기능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서울 사람들은 정치를 논하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 이곳에 모이기도 했다. 또한, 중요하거나 사사로운 모든 소식이 이곳으로부터 도시와 나라 전체로 퍼졌다. 여기에서 모든 소문이 퍼졌고, 추문이 이야기되었다. 조선에서도 가십거리는 사람 사는 다른 어느 곳과 다르지 않게 풍성하다. 여기서 사람들은 황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하고, 비판했으며, 이곳에서부터 출생, 사망, 결혼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호기심 많은 세상 속으로 퍼져 나갔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황궁이 있었고, 다른 수도에서도 볼 수 있듯 근처에는 이름답고 중요한 건물들이 있으며, 그 안에는 귀족과 관료, 고상하고 부유한 세계인들이 거주했다. 정말 화려한 건물은 두 개의 황궁으로, 서울의 북쪽에 있는 오래된 작은 궁궐과 새로 지은 여름 궁궐이었다. 두 궁궐은 두껍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일부는 흥미로운 과거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여름 궁전인 경복궁은 현 지배 왕조가 시작된 약 15세기경에 지어졌다. 궁은 여러 번 파괴되었으며, 마지막에는 200년 이상 거의 허물어진 채로 있다가 새로 재건되었다. 궁터는 약 1.5km에 달할 만큼 넓고,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깊고 넓은 구덩이가 담을 둘러쌌다. 궁궐은 이런 식으로 의

부 세계로부터 차단되어, 도시 안의 도시가 되었으며, 그 안에는 궁과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또한, 궁궐 안에는 마당과 정원, 연못과 많은 건물이 있었고, 황제의 친족이나 고관대작뿐 아니라 수많은 궁중 하인들과 궁녀들이 그 안에 기거했다.

궁궐이 있는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모두 4개인데, 그중 두 개만 사용했다. 주요 출입구인 남대문은 통행인을 신분과 지체에 따라 구분하는 세 개의 출입구를 갖고 있었다. 남대문은 건축학적으로 매우 섬세하고 화려한 매력을 뽐냈다. 화강암 조각으로 독창적으로 지은 하단과 목재로 마무리하고 파랗고 빨간 색으로 칠한 누각을 얻은 건축물이 중앙에 자리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배수로 위로 잘 지은 석교가 짙은 안개 속에 놓여 있고, 대문 지붕을 장식한 전설적인 동물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양옆의 높은 지주 위에서는 돌로 만든 사자가 대문을 지켰다.

폐위된 황제의 실제 거처는 도서관 건물이 붙어 있는 '별궁'¹⁴이었다. 실제로는 도서관이 아닌 이 건물은 아마도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외교관들이 붙인 명칭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유교와 관련된 서적만 있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유럽 스타일로 장식한 홀들은 접견실이나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방의 장식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다.

완전히 조선 스타일의 양식과 장식을 한 별궁에 유럽 스타일의 도서관 건물은 단순한 부속 건물일 뿐이었고, 별궁에는 황제 외에 궁중 무희들이 포함된 아리따운 여러 후궁이 거처했으며 오랜 왕조의 방대한 인력과 약 50여 명에 달하는 운현궁 인원을 포함한 궁궐의 인력 전체가 거처했다. 궁궐

의 인력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뚱뚱하고 배가 나온 사내들은 거세Pilegma를 통해 순결을 감시하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다른 이들은 강마르고 근육질인 몸에, 눈은 이글거리고 주름이 깊게 패 있는 황색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직업과 어울리지 않는 활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가진 공통점은 나태함이었다. 그들의 무위도식이란 대개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조선의 퇴위당한 왕을 모시는데 있어서 게으름의 고수들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왕궁으로 단연 남별궁南別宮 Nam - bijō - gun¹⁵을 들 수 있다. 남대문 근처에 있었던 이 수수한 궁궐은 동아시아의 다른 지배자들의 거처와 마찬가지로 장벽처럼 높은 돌담에 가려있었다. 조선이 중국의 지배를 받던 때에는 중국 황제의 사신이 이곳에 기거했다. 조선의 지배자는 황제의 사신에게 존경을 표하고 인사하기 위해 몸소 이곳으로 와야 했다. 이는 조선의 예속을 만천하에 보이는 관례였다.

옛날에는 이 궁에 연결된 영은문迎恩門¹⁶이 있었는데, 서울의 서쪽에 위치한 북경으로 가는 길에 있던 이 문은 환영과 은혜를 위한 문이었다. 조선의 지배자들은 이곳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했었다. 이 화려한 문은 조선의 독립 선언을 계기로 같은 자리에 새로 지어졌는데, 1896년 독립문이 그 자리에 세워졌다.¹⁷

15 남별궁은 원래 태종의 둘째 딸인 경정공주의 저택이 있던 자리로(현재의 소공동), 임진왜란 이후에는 왕이 중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쓰이다가, 1897년 고종이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를 헐고 그 자리에 황제위를 상징하는 환구단을 건립하였다.

16 영은문은 중국에서 온 사신들을 영접하던 모화관 밖에 설치한 문으로 서대문 밖에 있었고, 청일 전쟁 이후 모화관이 폐지되면서 영은문도 헐리고 독립협회가 주도하여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크뢰벨은 중국 사신 접대와 관련 있는 두 장소, 즉 남별궁과 모화관을 하나로 혼동하여 서술하고 있다.

17 독립문은 1896년 독립협회 등이 건립을 발의하여 1897년 완공되었다.

14 도서관 건물은 중명전(King's library)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종이 폐위한 후 기거한 (별)궁은 경운궁(오늘날의 덕수궁)이다.

그밖에 덕수궁에는 유럽 열강이 일종의 특권으로 간주할 만한 또 다른 궁궐 건물이 있었다. 황제에게 영향력 있는 고문이었던 손탁 양의 요청으로 지어진 새 궁궐이었다. 이 자랑스러운 건물은 완전히 유럽식으로 지어졌다. 실내 장식은 놀랄 만한 품위와 우아함을 뽐내는데, 파리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접견실은 황제의 색인 황금색으로 장식되었다. 황금색 비단 커튼과 황금색 벽지, 이에 어울리는 가구와 예술품들, 이 모든 가구는 황제의 문장인 오얏꽃으로 장식되었다. 붉은색으로 장식한 두 번째 방 또한 화려함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다. 이 세련되고 사치스러운 궁궐은 조선의 군주가 특별한 접견이 있을 경우 1년에 단 두어 차례만 찾았을 뿐인데도, 옛 황제의 거처로 간주했다. 이 궁의 주된 목적은 외국의 고위 인사가 잠시 머무는 숙소로, 이런 시설을 통해 특별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려 했다. 전문가가 보아도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이 궁궐 건물에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흠이 하나 있었다. 건물 측면에 마련한 정원 한가운데 설치된 분수는 물 없는 물놀이 장치로, 일본은 사람을 잘 믿는 옛 황제에게 이 분수를 1등급 예술 작품이라고 설득해서 값비싸게 팔았다. 분수는 도쿄 박람회¹⁸에 있던 것으로 비싼 가격으로 들여왔다. 이제 이 인공분수는 옛 군주의 순진함과 절대 배우고 싶지 않은 일본의 상술을 비아냥대는 듯 서 있다. 분수가 물을 뿜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인데, 만일 물을 뿜었다면 궁궐 건물은 물론 주변까지도 이미 물로 다 적셔놓았을 것이다.

내가 있던 시절에 아직 짓고 있었던 거대하고 화려한 황궁을¹⁹ 잠시 살

펴보기로 하자. 황궁 건축은 조선의 관세와 세금을 주무르던 기업가인 맥리비 브라운²⁰이 맡았으며, 단계별로 10년 이상 소요되었다. 건축에서 특이한 점은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대범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라의 세수와 관세수입에서 해마다 적지 않은 액수를 건축자금으로 썼다. 국고가 바닥나면, 백성의 세금과 관세가 다시 충분히 흘러들어 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맥리비 브라운에게도 적지 않은 물질적 이득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국고를 채우고 비우는 법을 잘 알았던 이 뛰어난 관세 책임자는 조선 백성과 나라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그의 업적 중에 서울의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일본 천황이 옛 조선 황제에게 선물한—탑이 수년 동안 서 있었다. 공원은 유럽의 다른 대도시들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탑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문명화된 유럽에서는 선물을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설사 왕이라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다른 관습이 있었다. 조선이 일본에 의해 점유되자 천황의 선물 파고다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²⁰



나는 어떻게 조선 황실에 오게 되었나

내가 조선 황제의 궁중 업무를 맡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우연이었다. 황제는 궁정 집사인 손탁 양에게 유럽으로 장기간 휴가를 보내주려 했고, 그

19 맥리비 브라운의 원래 직책은 총세무사이나, 크뢰벨은 기업가로 서술하였다.

20 탑골공원의 원각사지십층석탑에 대한 크뢰벨의 서술은 오류이다. 크뢰벨은 미카도가 조선의 황제에게 결혼 선물로 석탑을 주었다고 서술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일본에 반출되었다가 반환된 석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다. 이 탑도 일본 천황이 선물한 탑은 아니다.

18 덕수궁 석조전을 말한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서구 근대국가를 모델로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전 건립을 계획하였고, 영국인 하딩이 설계한 석조전은 1900년 말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1910년 완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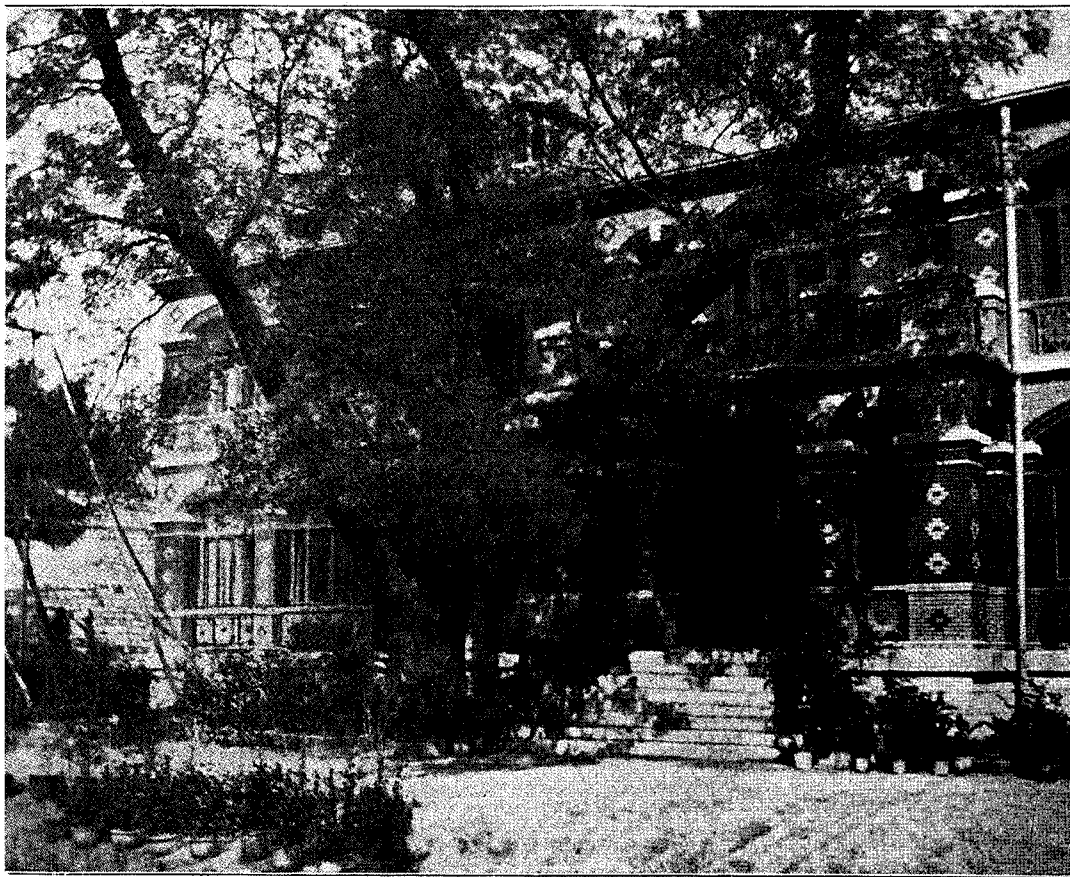


그림 21. 서울에 있는 새로 지은 황궁(덕수궁 돈덕전)

로 인해 궁궐 사람들은 크게 낙심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자리가 워낙 커서 대신할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여행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기를 원했고—손탁 양은 유산을 정리하고 다른 개인적인 일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했다—황제가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했다. 지레 짐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1년에 달하는 궁정 집사의 휴가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그녀가 모종의 정치적 임무를 띠고 유럽에 간다고 생각했다. 그런 추측은 당연히 의미 없는 입방아에 불과했지만 러일전쟁이 끝난 당시로써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러나 손탁 양의 유럽 여행이 부차적인 목적을—아마도 외교적인—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황실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던 황제의 총아 이용익(李容植)이 그 시기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가 청렴하게 황제에게 충성했고 재정 문제에 있어 황제의 최측근으로서 무한한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몰락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용익은 홀연히 궁정에서 사라졌으며 오랫동안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았다. 관직과 위엄을 동시에 갖추고—이용익은 화폐주조 책임자이자 재무부 대신이며 황군의 지휘관이자 황실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친러파의 우두머리였다—황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 중 하나가 돌연 사라진 것을 두고, 사람들은 모종의 정치적 임무를 위해 그를 유럽의 정계에 파견했으리라 추측했다. 사람들은 이미 조선을 덮친 불행을 막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가 유럽의 어느 왕실로 갔을 것이라고 보았다.²¹ 그리고 이용익 같으면 그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

21 이용익은 1905년 8월 상해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차 유럽에 가서 프랑스 혹은 러시아측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풍문이 있었다. 실제로 이용익은 9월 프랑스 우편선을 타고 유럽에 도착하여 프랑스, 독일을 거쳐 러시아에 가서 람스도르프 외무대신을 만나고 대한제국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였다. (서영희, 2003, 『대한제국정치사연구』, 서울대출판부, 304-306쪽 참조)

로 생각했다. 그는 정말 어떤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정치가였는데, 특히 그의 겸소함을 들 수 있다. 비천한 출신으로—그는 하층민 출신이다—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그는 야망과 무자비함으로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백성들 사이에서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잔인함이 있었다.

그가 사라진 것에 대해 다른 추측이 유포되었는데, 이용익이 국가 대신 전체와 여러 영향력 있는 궁정 여인들의 음모로 몰락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용익이 군주가 좋아하는 후궁 엄비Lady Om를 심하게 모욕했다고 황제에게 고해바쳤다는 것이다.²² 그로 인해 극한 분노가 분출되었고, 그의 적들은 이용익의 죽음을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 공사 베베르Waeber가 조치를 강구하여 그를 러시아 군함에 태워 뤼순^{旅順} 항으로 탈출시켜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는 뜻을 황제에게 분명하게 전한다면, 그러한 요구는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황제는 베베르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용익을 용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국고가 바닥난 당시의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오직 이용익만이 국고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많은 재정을 끌어들이는 수단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비상시에 현금화할 수 있는 황제의 귀금속 전부가 들어있는 금고 열쇠를 이용익이 가지고 있었다. 이용익이 머무는 곳을 알게 된 황제

는 서둘러 총애하는 신하를 불러들였다.

이용익은 마침내 다시 한 번 궁궐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나라의 공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잠시 후 갑작스레 사라졌다. 황제의 총아이자 궁정 집사 손탁 양의 총아이기도 했던 그는 결국 궁중 음모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추측만 할 뿐 말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일들이 궁정 집사의 여행 계획을 망쳐놓았다. 손탁 양은 휴가 여행을 오랫동안 연기해야 했는데, 집사 업무를 대리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적임자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예절과 관습에 정통하고 유럽의 고급 요리에 밝은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내가 궁정 집사 업무를 맡으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것은 운명이 가져다준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내 앞에 놓인 과제의 막중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그 제안을 수락할 수 없었다. 손탁 양은 자신의 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거의 1년 동안의 시간을 내게 허락했다. 그보다 더 낭만적이고 환상적일 수 없는 전문분야의 한가운데 있다는 느낌, 지구촌에서 가장 신비스런 나라의 사람과 일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느낌은 머리를 복잡하게 한 모든 상념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그 일의 유혹은 내게 너무나도 컸다.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던 급여 문제 또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칭다오^{靑島}에서 많은 일을 하는 남편의 동의를 얻고 궁정 집사 손탁 양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한 후 업무를 맡기로 승낙했다.

손탁 양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황제의 알현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것에 관해 지금부터 이야기하려 한다.

22 이용익이 궁중의 실력자인 엄비를 중국의 양귀비에 비유했다가 불경한 언사라는 이유로 정적인 이근택 등의 탄핵을 받아 실각한 것은 1902년 11월이다. 이때 이용익은 러시아 군함을 타고 뤼순에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1903년 1월 귀국하면서 다시 궁내부 내장원경에 복귀한 것으로 보아 재정문제 타결을 위해 고종 황제의 밀명으로 러시아측 지원을 끌어내려고 러시아 극동총독부가 설치된 뤼순에 갔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는 마침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와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친려책을 견인하고 있었다(서영희, 2003, 『대한제국정치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35~136쪽 참조).



그림 22. 서울의 새로 지은 황궁 출입증

우리는 알현을 위해 도서관 건물(중명전)²³로 갔으며, 앞서 언급한 바대로 중명전의 가장 큰 홀은 황제가 접견할 때만 주로 사용했다. 그곳에 닿기 전에 대문을 지나야 했는데, 대문의 커다란 천장에는 ‘대안문(大安門)’²⁴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었다. 현실과 모순되는 이름이었다. 바로 그즈음에 이곳에서 커다란 소요가 있었던지라 주변은 어수선했다. 접견이 있는 동안 검은 복면을 한 사람들이 궁궐로 들어가는 테라스 모양의 계단에 서 있었다. 그들은 황제를 알현하거나 궁중에 일을 보러온 사람들이 타고 온 가마꾼이거나 시종들이었다. 이들 시종은 하나같이 넓고 검은 도포를 입고 챙이 넓은 검은 갓을 썼으며, 갓의 윗부분에 붉은색 띠를 둘렀다. 이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동안, 그들 앞에는 마치 중세 유럽 용병과 유사하게 착검한 창을 볼 수 있다. 테라스 아래에는 정사각형 형태의 작은 나무 상자인 가마들이 있었다. 가마는 대개 지체 높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한 명만 앉을 수 있었다. 가마는 대개 탄 사람의 지체에 따라 6~8명의 가마꾼이 운반했다. 또한 말뚝에는 높은 안장과 여러 장식을 한 조랑말이 매어져 있었다. 이 작은 말은 궁정 기병대가 타는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은 이방인에게 궁궐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곳에 대기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잠에 빠져 평온의 순간을 연출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전장(戰場)에 와 있다고 믿으려 했을 것이다.

우리는 중명전 접견실 전에 있는 큰 홀에서 황제의 등장을 기다렸다. 커다란 식당인 그 방은 궁정관리들과 황제를 알현하려는 사람들로 점점 더 가

23 중명전을 말한다. 1904년 4월 경운궁(덕수궁)에 일어난 대화재로 고종은 수옥헌(현재의 중명전)으로 거처를 옮긴 후 궁궐 중건을 지시하였다.

24 대안문은 1906년 4월 수리하면서 현재의 이름인 대한문(大漢門)으로 바뀌었다.

득 찼다. 한편 기다리는 동안 이것저것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었다.

조선의 궁정관리는 날개 달린 모자²⁵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는 대단한 총명함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 계급이 장군이였다. 사람들은 내게 그를 민영환^{閔泳煥} 장군이라고 소개했고 그는 황제의 친척이자 살해된 왕비의 조카였다. 그와 나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매우 흥미 있는 대화를 영어로 나눴다. 궁정에서 이 장군만이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고 황제의 주변 인물 중 상당수가 영어 외에 프랑스어도 구사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독일어 또한 거의 완벽하게 구사했다.

그러는 동안 갑자기 홀의 문이 열리고, 젊고 호감이 가는 외모에 영리하고 살아있는 눈과 지적인 용모를 가진 의전 책임자 고^高²⁶가 들어왔다. 그는 우리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서 손탁 양에게 매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나를 소개하자 그는 내게 정중한 말을 몇 마디를 건넸고 황제가 나를 알게 되어 기뻐하시며 곧 거행될 접견이 끝난 뒤 곧이어 나를 접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는 내게 다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우리를 접견실로 부르는 손짓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손탁 양은 휴가 중인 궁정 집사를 한시적으로 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무에 대해 내게 설명했다. 주요 의무란 매우 잘 훈련된 궁정 하인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나는 미래의 궁정 업무를 위한 실습을 하는 셈이었다. 그때 마치 부르기라도 한 듯이 하인들이 다가와 우리와 알현하려는 사람들의 수행원들에게 다과와 담배를 접대했다.

25 사모(紗帽)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6 고는 궁내부 예식 담당관이었던 고희경(高羲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의 축제 때 광대들이 쓰는 것과 비슷한 흰색 모자를 쓴 환관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주전부리할 것이 있으면 언제 어디든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접대에 대한 관리는 매우 엄정하므로 하급 궁정 관리들은 접견대기실에서 제공되는 맛있는 먹을거리를 똑같이 접대 받음으로써 물질적으로 보상받으려 했다.

문이 다시 열렸으나 이번에는 후궁들의 거처로 향해있는 문이었다. 10살 정도 되는 사내아이가 방안으로 쏙살같이 뛰어 들어왔다. 황제가 총애하는 후궁 엄비의 아들 영친왕^{英親王}이었다. 영어 이름 레이디 엄^{Lady Om} 때문에 그녀가 영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형적인 조선 여성이며 그녀의 흥미진진한 인생사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세 명의 보모를 대동하고 나타난 영친왕은 귀엽고 생기 있는 소년이었다. 보모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할 나이를 훌쩍 넘긴 사람들이었다. 궁정관리들은 꼬마 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산한 꼬마 왕자는 먼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손탁 양에게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고 이어서 나와 그 아이는 다른 궁정 사람들에게도 인사했다. 우리는 그의 인사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왕자는 차 한 잔을 청했고 그에게도 차가 제공되었다. 소년의 조심스럽고 노련한 행동거지로 볼 때 후궁들이 주도하는 서울의 황궁이 아니라 유럽인의 손에서 유럽식 예절 교육을 받고 자란 것으로 여겨졌다. 그의 조심성과 노련함은 궁정에서 그를 교육했던 영국 여성 줄리 여사^{Mrs. Joly} 덕분이었다.

접견실 문짝이 활짝 열리자, 의전 책임자가 나타나 우리에게 황제가 행차하신다고 알렸다. 우리는 얼른 정해진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황제가 아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동안, 우리는 궁중의 의전 절차에 따라 짧은 간격을 두고 세 번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침착하게 인사했다. 우리

에게 다가온 황제는 손을 내밀어 정중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황태자 역시 우리에게 다가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통역관의 도움이 있어야 했다. 황제와 황태자는 화려하게 수를 놓은 비단 가운을 걸쳤는데 황제는 황금색, 황태자는 붉은색이었다. 그들은 조선에서 권력과 명망을 표시하는 넓은 사모를 썼다. 고종 폐하는 창백하고 지적이며 친절할 얼굴로 눈에 깃든 우수는 무척 호감이 갔다. 팔지수염은 우리 유럽인들에게 그의 용모를 민주주의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스타일은 조선의 귀족이었다.

황태자(지금의 황제 순종)는 덜 호감이 갔다. 마른 그의 외모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당시 약 30세 정도였던 그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병든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우리와 대화하는 동안 온몸을 떨었다. 세심한 사람은 욕정과 패륜으로 거의 백치가 되어버린 사람을 면전에 두고 있다고 오해할 만했다. 그의 불행한 운명에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상태에 있던 그는 조선의 병합을 위해 일본이 필요로 하는 허수아비 황제였다. 그는 일본의 장난감에 불과했다.

황제는 내가 진심을 다해 그를 도울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도망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 탓에 충성스런 조언자 없이는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의 믿음과 만족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노라고 그에게 약속했다. 이러한 내 말은 그에게 크게 와 닿았고 그의 우울한 눈은 밝아졌다. 그는 고마움의 표현으로 내게 손을 내밀었다. 몇 분에 불과했던 알현은 이렇게 끝났고 나는 그 순간부터 조선 황제 폐하의 궁정 집사였으며 집사라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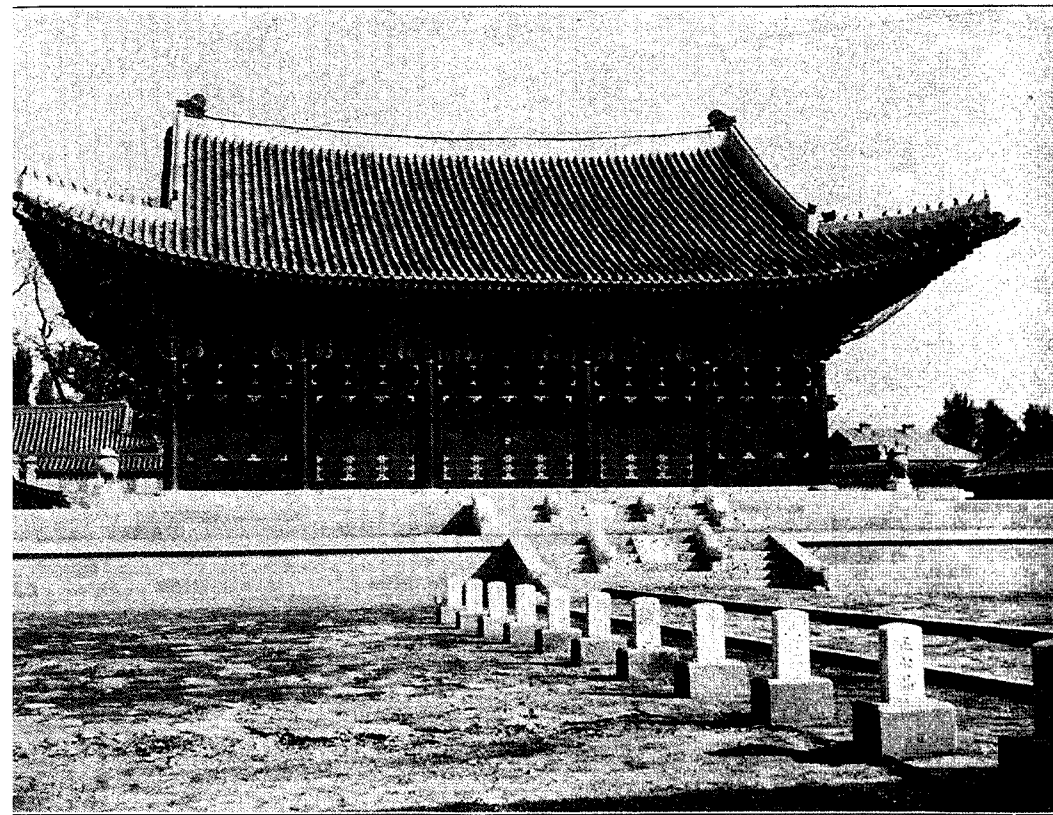


그림 23. 서울 소재 황제의 접견 장소(덕수궁 종화전)



고종황제와 그의 황실

조선의 지배자 고종은 1890년대 중반 스스로 황제 칭호를 부여했다.²⁷ 물론 칭호가 그렇다고 그것에 걸맞은 권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의감과 백성에 대한 자애로움으로 인해 사랑받고 존경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황제의 권력이 미치는 영역은 협소했다. 그러나 전제적 국가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듯이 지배자와 백성 사이에는 양자의 화합과 이해를 방해하며, 백성의 고향을 빼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관리집단이 존재했다. 부지런한 조선 백성의 골수까지 빨아먹는 부패는 황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는 특히 군침 도는 약탈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여러 번의 시도는 다행히도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지갑을 노리는 공격은 그만큼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²⁸

조선의 수도 서울에는 약 10여 년 전부터 수익성이 좋은 전차가 다녔고 운영과 관리는 일본의 주식회사가 맡고 있었다.²⁹ 황제가 최대 주주로 그는 처음부터 철도 운영이 엄청난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챙기기는 커녕 늘 보조금을 지원해야 했다. 사람들은 유럽의 주식 제도에 어두운 황제를 속여 건설한 기업이 적자가 나서 항상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황제한테 뜯어낸 보조금은 당연히 일본인의 주머니

로 들어갔고 그중 일부는 궁정 간신배 무리의 부패에 자양분으로 쓰였다.

서울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의 접촉을 통해 비로소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리의 부패는 여전히 나라의 경제발전을 저해할 만큼 심각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하급 관리는 가는 곳마다 그곳 도시나 마을의 원로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었다. 그가 공짜로 얻는 것은 순수하게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어여쁜 여인이 제공하는 성적인 즐거움도 포함되었다. 예쁜 처녀는 전국을 순회하는 관리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여흥을 제공해야 했다. 그로 인해 탐욕스런 관리가 행차라도 하면, 모든 백성이 자취를 감추어 마을이 텅 비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어린 황제의 권력은 매우 제한되었고 실제적인 권력은 그의 어머니인 조대비에게 있었다. 조대비의 양자인 황제는³⁰ 그의 양어머니가 왕권을 놓고 다른 두 명의 후궁들과 암투를 벌여 승리하는 것을 12살의 나이에 경험했다. 왕은(당시에는 황제 지위가 없었다) 15살에 민씨 가문의 가난한 양반집 딸과 결혼했다. 훗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젊은 왕비는 혈기왕성하고 권력 지향적이었다고 알려졌다. 그로 인해 그녀는 얼마 안 있어 황제 주변의 권력을 타파해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는 당시 왕세자로 현재 조선의 황제가 되었고 다른 왕자는 꿈꾸던 행복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다.³¹ 그는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왕자가 자신의 아내를 궁궐

27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28 황제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약탈할 수 있었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29 1899년 개통된 전차는 애초에 고종이 설립한 한성전기회사와 미국인 콜브란(H. Collbran), 보스트윅(H.R. Bostwick)에 의해 건설되었다.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불 받을 돈과 한성전기회사 자산을 근거로 고종과 반반씩 투자하는 형식으로 1904년 한미전기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콜브란 등은 순이익을 올리는 이 회사를 1909년 일본와사회사에 매도해 버렸다.

30 고종은 후사 없이 사망한 철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철종의 선대인 순조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효명세자(후에 익종으로 추존됨)의 양자가 되어 대통을 잇게 되었으므로 효명세자빈인 조대비가 양어머니가 된다.

31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살아남은 왕자는 순종황제 한명이고, 미국 유학과 일본 체류생활을 거쳐 1906년 귀국한 의친왕은 고종과 장귀인이라는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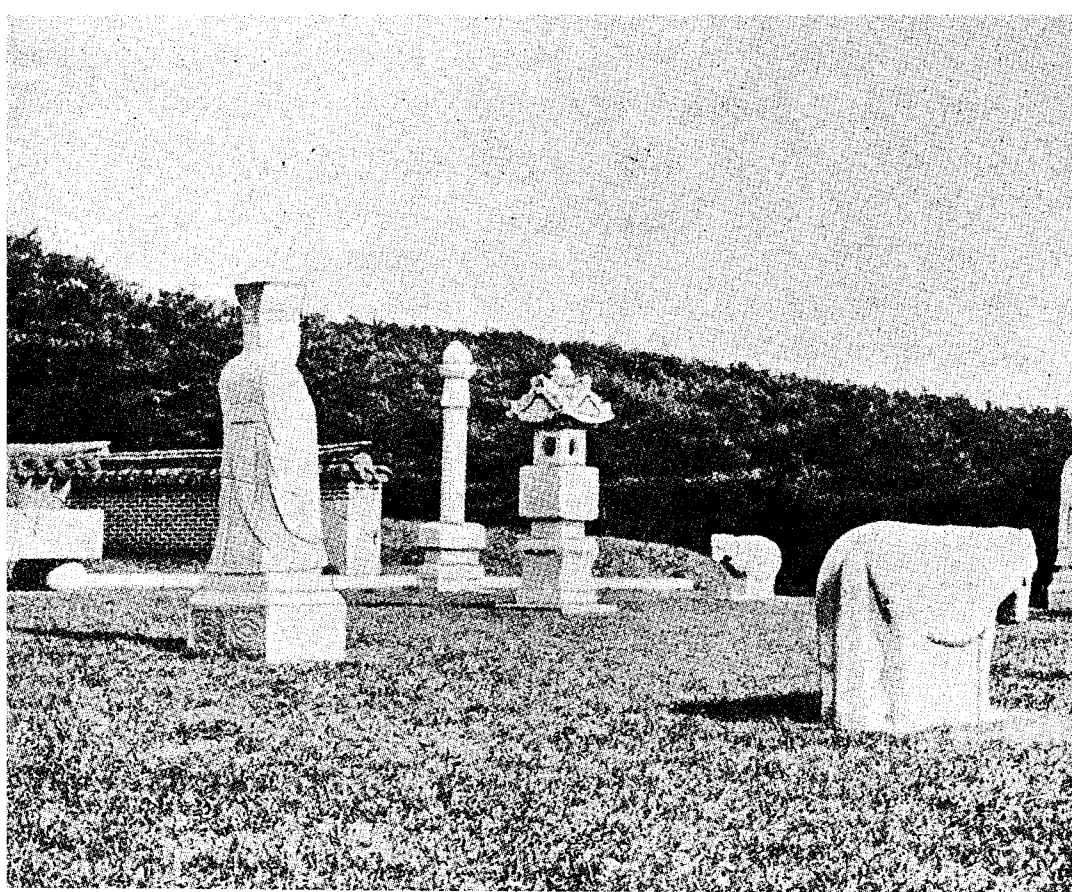


그림 24. 조선의 중심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에 있는 조선왕조의 가족 능묘

에 남겨둔 채 영원히 조국을 떠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왕자 역시 궁중의 음모와 암투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의 어머니와 아내의 간섭으로 황제의 권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육군과 해군에 대한 통수권을 갖고 있었다. 물론 조선의 육군과 해군은 문화국가들이 가진 군사조직과는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가 법적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의 구성요소이다. 황제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그들에 대해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는 군사적인 사안을 홀로 결정해야 하기도

하다. 관리를 임명하고 포상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그에게만 있으며, 임금 문제나 기타 중요한 국사(國事)도 오직 그만이 결정할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한다고 믿었다.

황제가 자신의 지위를 동아시아의 제후들보다 더 진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관리나 외국 사절들을 알현하고 접견하며 보내는 낮 시간 외에 밤에도 나랏일을 처리한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그는 일하고 시급한 국사를 처리한다. 그러나 그는 시끌벅적한 잔치를 즐길 줄도 안다. 잔치에는 왕자들과 주변 인물들, 궁중 전체가 참여한다. 잔치의 꽃은 대개 궁중 무희들이 보여주는 춤과 현악기, 관악기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다. 유럽인들에게 이국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무희들의 춤 솜씨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다. 춤은 대체로 매우 독특한 연속적인 춤사위로 표현된다.

무희들은 황제와 귀빈들 앞에서 머리 숙여 인사를 한 뒤, 팔을 수평으로 뻗은 채 손과 다리로 갖가지 동작을 선보인다. 이때 상체는 춤을 출 때, 균형을 유지해주는 동작을 동시에 한다. 춤의 백미는 두말할 것 없이 동아시아 여성들이 능숙하게 다루는 부채춤이다. 동작의 리듬은 무희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의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비단으로 된 의상 역시 아롱대는 부드러움으로 환영에 전줄만한 춤의 이미지에 화려한 색상으로 매력을 더해준다. 춤과 무희는 문화국가의 발레와 전혀 다르다. 발레에서는 의상을 최소화한다면 여기서는 그와 정반대이다. 조선 무희들은 온갖 치장을 해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버린다. 상체를 덮는 얇은 비단 저고리는 가슴 아래에서 커다랗고 화려한 비단 옷고름으로 고정된다. 그러나 주름진 치마가 하체 전체를 덮거나 감추어버려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의 우아한 자태로부터 작고 앙증맞은 발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머리 스타일 역시 볼품없다. 그것은 인공 모를 둔중하게 쌓아올린 것인데, 그 밑에 있는 아이 같은 얼굴과 호기심 어

린 두 눈 덕분에 머리 요괴Haarungetüm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무희들(기생) 대부분은 아직 어린 나이로 큰 키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다. 이 처녀들로부터 궁중 무희와 황제 후궁이 충원되었다. 유럽의 소녀들도 서울에 있는 황제의 후궁 무리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유럽 국가의 영사관들은 그 문제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 영사관들은 모험심 많은 훌륭한 부르주아 가정 출신 소녀들의 문의를 자주 받았지만, 황궁의 후궁 행정부서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았다. 조선의 황제는 자기 나라의 딸들을 더 좋아했다.

황제는 예쁜 처녀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욕망은 그가 항상 예쁜 처녀를 새로이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 하는 것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한 처녀한테서만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데, 그녀는 하층민 출신이었다. 그녀의 미모에 푹 빠져 버린 그는 급기야 그녀를 정실부인으로 들이기로 결심했고 그의 소원은 훗날 첫 번째 부인이 끔찍하게 죽고 난 뒤에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 일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듯이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살해된 왕비가 아직 살아있을 때, 신하 타이³²는 왕으로부터 특별히 예쁜 여자 아이를 후궁으로 물색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왕의 총애와 두둑한 보수에 대한 기대로 타이는 그 일을 기꺼이 맡았다. 왕이 기대한 바대로 특별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후궁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그는 마침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온 나라를 돌아다녔다. 그는 어느 가난한 집에서 독특한 매력을 지닌 어린 소녀를 발견했고, 그는 소녀를 왕에게 건넸다. 총애하는 신하 타이의 선택은 황제의 마음에 확실하게 들었고 황제는

그에게 돈을 두둑하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호위대장으로 임명했다. 그것은 군대에서 커다란 명망과 영향력을 보장해주는 직책이었다.

왕비는 자신의 라이벌인 영보당 귀인 이씨³³에 대한 남편의 애정을 알게 되었고 극도의 질투심에 빠진 나머지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왕조차도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후궁을 조달해준 연유로 왕비의 총애를 잃게 된 타이 대장이 갑자기 모든 직책과 명예를 잃고 온갖 모욕을 당하며 궁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그사이 궁녀로 진급한 왕의 새 애인 엄비는³⁴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 고³⁵ Ko의 도움으로 야반도주를 해 죽음을 면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했으며 수년 동안 그녀를 숨겨주었다.

그사이 일본과 조선의 정치적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일본이 왕과 왕비의 목숨을 노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국, 왕비는 끔찍하게 살해되었고 왕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함으로써 목숨을 건졌다.

왕비가 사망한 뒤, 애인에 대한 왕의 그리움이 다시금 짙었다. 한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숨어 사는 동안 아이 하나를 출산했다. 그녀가 거처하는 곳을 알게 된 왕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옛 지위에 다시 임명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옛 명성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에 의해 지위가 연이어 상승되기도 했다. 그녀는 처음에 ‘순비Prinzessin, Sunbi’라는 빈³⁶ 칭호를 얻었다. 이어서 귀비Kwibi 칭호가 부여되었고 왕조차도 억압했던 권력과 영

33 저자는 Gen-Sho-Kiu로 표기하였는데, 맥락상 추정되는 영보당 귀인 이씨로 번역했다.

34 엄비는 명성황후 살아 생전에 고종의 승을 입었으나 명성황후에 의해 궁 밖으로 쫓겨났다가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사망하자 다시 입궁하여 고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1896년 아관파천을 성사시키고 1897년에 영친왕을 낳았으며 1903년 황귀비로 책봉되었다. 엄비가 궁에서 쫓겨나 숨어사는 동안 영친왕을 낳았다는 크뢰벨의 서술은 사실이 아니다.

32 대한제국기에 호위대장 역할을 하며 권력을 행사한 이근택으로 추정되나 그가 엄비를 추천한 것은 아니다.



그림 25. 조선의 관료

향력을 이런 식으로 갖게 되었다. 망명 시절 왕비한테서 태어난 사내아이는 —영친왕 Kronprinz Eiji— 현재 일본에서 자라고 있고³⁵ 다른 이름을 얻었으며 이렇게 황궁에 들어와 황제의 총아가 되었다.

아이는 뛰어난 지성을 갖춘 인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로 인해 일본인들은 황태자를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그를 일본식으로 교육하기 위해 데려갔다. 이 황태자가 조국의 운명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무관無冠’의 조선 황후

프랑스 공사관 옆에 위엄 있는 건물이 하나 서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황궁 관리인 손탁 양의 저처이다. 커다랗고 시원한 베란다를 갖춘 건물 안에는 아름다운 종려나무들과 꽃이 만발한 식물들이 있다. 저택은 훌륭한 인테리어를 갖추었고, 진귀하고 값비싼 비단으로 장식된 우아하고 안락한 가구들은 유럽의 공방에서 제작되었으며, 손탁의 손님으로 허락받은 지인들이 이 저택에 머물도록 초대받았다.

내가 능력 있는 그 여성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이 저택이었다. 손탁 양은 흰머리와 날카롭고 살아 있는 눈, 엄격한 표정의 위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탄력을 잃지 않은 인물로, 사람들은 그

35 영친왕은 망명시절이 아니라 대한제국 수립 직후인 1897년 10월 20일 경운궁에서 출생했다. 1907년 11살의 어린 나이에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 육군 유년학교에 입학하였다.

녀를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았다. 그녀는 조선의 황궁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녀는 진정한 정신적 지주이다. 그녀가 허약한 왕정의 결정과 심지어 정부의 정책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손탁 양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많은 장점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조선에 있는 외국인 중 특히 유럽 열강의 대표들에게—이곳에서 격무에 시달리기보다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변리공사와 영사들—그녀는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³⁶

물론 그녀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이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을 옆에 두고 있는데, 그는 특히 조세와 관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나라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이 되는 인물이다. 영국인 맥리비 브라운(Mcleavy Brown)은 한 때, 중국에서 그의 적수였던 로버트 하트(Robert Hart) 경이 갖고 있던 강인함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하트 경은 수십 년간, 그리고 중국의 부왕(溥儀)인 이홍장 시대에도 여전히 동아시아 전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당한 명예를 누렸다. 이 두 인물은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들은 서로를 잘 이해했고 진심으로 서로를 도왔다.

손탁 양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대가로 받는 수입은 소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그곳에 체류했던 시기에 그녀의 연봉은 15,000마르크를 넘지 않았다. 그녀가 여러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부수입이 그 연봉보다 몇 배는 많았

다.

‘무관’의 조선 황후는 지배뿐만 아니라 돈을 벌 줄도 알았다. 그녀가 서울에서 해냈던 여러 대규모 건축공사가 이를 보여준다. 그녀는 유럽의 상류층이 겨울에 찾는 남프랑스의 휴양지 칸에서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다. ‘통치하는’ 이 늙은 여성은 재테크 능력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녀가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조선 측으로부터 그녀에게 정당하지 않은 비난이 쏟아졌다. 즉, 그녀가 자신의 커다란 영향력을 통해 이질적인 외국의 풍속과 관습의 유입을 막기는 커녕 수용하고 장려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황궁에 초대받아 행사를 관람한 외국인들은 이곳에서 조선의 풍속과 관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유럽의 것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조선의 백성들은 수 세기 동안 외부의 문화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 왔으며, 외국의 모든 것을 불신하고 멀리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현상은 더욱 이질적으로 여겨진다. ‘통치하는’ 손탁 양은—그녀는 알자스 태생이다—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문을 열어주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문화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나라에서 외래문화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졌다는 것이 민속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황궁의 식사 예절은 유럽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공식 만찬에서는 현대식으로 장식된 식탁 위에 엄선된 프랑스 요리가 오른다. 송로버섯 파이와 굴, 캐비어 등은 흔한 요리에 속하며, 프랑스 샴페인은 본고장의 유사한 행사에서 보다 더 풍성하게 제공된다. 마치 유럽의 제후 궁정에 초대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조선의 황궁이 지킨 단 하나의 관습은 그러한 행사에 호스트는—이 경우에는 황제 자신이다—나타

36 즉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으니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주변 고위급 인사들을 보내며, 그들은 황제를 대신해 손님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사람은 백발의 손탁 양이다. 그녀는 손님들의 눈을 피해 조선의 전통적인 우산 뒤나 화려한 커튼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며 군림한다. 행사에 투입된 황제의 시종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데는 그녀의 눈짓 하나면 충분하다. 시종들의 숫자는 30명이 넘는다. 중국인인 조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조선인으로 중국인 조리장은 고급 외국 요리를 준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물론 그는 필요한 만큼의 보조 요리사를 거느린다. 이들 다수는 여러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데 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

사람들은 궁금해 한다. 과거로부터 전래된 모든 것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외국 것은 모두 불신하고 거부하는 이 나라에서, 부르주아 출신의 외국인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대단한 영향력과 지배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이다. 비결은 이 여성의 대단한 외교술에 있다. 그녀는 먼저 1907년 일본에 의해 퇴위된 우유부단한 성품의 황제가 자신의 조언만 들도록 하기 위해 그를 주변으로부터 떼어놓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1895년 10월, 청일 전쟁이 끝난 뒤 일본 공사에 의해 주도된 일본 경호대 Wachtmannschaft의 조선 왕실 습격 사건이었다.³⁷

일본군은 일본 공사 미우라三浦梧樓의 지시로 당시의 왕궁(나중에 황궁)을 습격했고 그곳에 있던 왕비를 체포해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석유를 뿌려 불태웠다. 겁에 질린 왕은 궁녀의 가마를 타고 탈출했다. 그는

37 일본 정부의 지시하에 일본군인과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살해한 을미사변을 말한다.

당시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있던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했다. 그는 이 외교관의 보호 아래, 반란을 일으킨 일본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 왕은 안전한 러시아공사관에서 1년 이상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이 시기에 공사의 친척이자 당시에 이미 나이가 제법 된 손탁 양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고마움을 느꼈다. ‘망명 중인 왕’은 그녀의 유능함과 자기 주변에 계속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했다. 손탁 양은 이렇게 조선의 황실에 있게 되었고 여성으로서의 탁월한 외교술을 무기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지위에 올라 어떤 의미에서 무제한적인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무관’의 조선 황후라는 별명이 말해준다.

권력에 도달하기까지 황제의 측근인 그녀는 모든 수단을—당연히 허락된—동원했다. 그녀는 종종 편지와 실리를 결합했다. 그녀는 그곳의 상황에 맞춰 쾌적하게 꾸며진 세 개의 저택에 외국의 외교관들이 묵도록 했다—물론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내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각국에서 온 미혼의 젊은 외교관들은 손탁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펜션의 소유자는 ‘무관’의 조선 황후였고 아직도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국가들 간의 관계가 손탁 양에 의해 어느 정도 조종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나이는 지긋했지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여성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조선 정부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빠르고 확실하게 받으려는 사람은 그녀를 찾았고 그녀가 개입하면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 밖에 난 사람은 각오해야 했다! 황제와 조선의 황실, 정부와 접촉하는 데 있어서 그녀가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는 황제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면에서 그녀에

필적할 만한 인물인 맥리비 브라운이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그와의 협력 하에 이 나라를 통치했다.

그녀는 사적인 관계에서는 후덕하고 친절했다. 그녀는 사업상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이러저러한 갑을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마저 이내 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적인 관계는 상당히 협소해서 대개 그녀를 좋아하는 이들은 고위관료나 젊은 외교관들로 국한되었다. 그녀는 젊은 남성 외교관들을 종종 초대했고 사적인 관계에서는 남성들을 선호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는데, 괜찮은 식사와 훌륭한 와인—그중에는 최고급 프랑스 샴페인도 있다—아바나산 시가가 손님들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러하듯이—그녀는 막강한 여류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여러 취미가 있었다. 먼저 그녀는 애완동물을 좋아했는데, 염소와 소, 새끼돼지와 함께 키우는 조랑말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내가 보기에, 애완동물에 대한 그녀의 보살핌은 황실의 살림이나 조선의 국사에 썼던 신경 못지않았다. 궁정 내에서 낮은 지위에 있었던 한 젊은 조선인만이 그녀의 마음 가까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유산을 남기기로 결정했고 그녀 자신이 이 사실을 자주 밝혔다. 그녀는 그와 함께 유럽 여행에 나섰는데, 그는 결국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여행 도중 주인마님의 노여움을 사 파리에 남겨졌다고 한다.



서울에서의 공과 사私

조선인들에게는 유럽적인 의미의 공과 사가 없는데, 그 이유는 교제란

남성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부인이나 과년한 처녀는 집안에만 있어야 하며 외부와의 교제 중에서도 특히 남성과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된다. 친구 간의 우정은 오직 남자와 남자 사이, 또는 여자들 사이에서만 허락되며 이성 교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 간의 구분과 격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과거에는 해가 떨어지면 남성들은 거리나 공공장소에 나갈 수 없었는데, 밤에는 여성들에게 외출이 허락되기 때문이었다. 밤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눈에 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러한 금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양반집 규수는 대낮에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이 보이지 않는 가마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조선인의 사교는 집안 잔치에 국한되며 잔치에는 주인의 가까운 친척과 여성들이 함께 참여한다. 양반집 규수들에게도 허락되는 공적인 잔치는 조선에 존재하지 않는다. 궁궐 잔치에도 여성의 참여는 금지되며 따라서 고위급 인사들도 부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나타난다. 궁궐 잔치에 입장하는 것이 허락되는 유일한 여성은 무희들뿐인데, 그러나 그들 역시 주체가 아닌 보여주는 대상으로서 참석하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소위 ‘소사이어티^{society}’와 사교생활을 말하기 어려운 만큼, 서울에 주재하는 유럽인들의 사교는 그만큼 더 눈에 띈다.

따라서 서울에는 ‘소사이어티’와 사교가 모두 존재한다. 양자는 외국인들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유럽인들이다. 소사이어티는 먼저 국제 외교계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데, 변리공사와 공사, 유럽 및 비유럽 무역회사 소유주 및 대표, 그밖에 고학력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다. 활발한 사교를 통한 결속은 매우 강한 편이다. 사교의 중심은 클럽으로 남성들은 위스키를 마시거나 포커를 하면서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여성 또한



당구 게임을 하며 우아함을 뽐내고 남성들을 사로잡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춤도 자주 추는데, 이를 통해 분위기가 고조되며 프랑스나 독일 샴페인은 국제적인 유대에 활력소가 된다. 사람들은 또한 이러저러한 즐거운 일을 계기 삼아 서로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는 가벼운 담소를 나누고 음악을 연주하며 소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소문이란 대개 이런 것이다. 즉, 거의 1,900만 달러 정도를 가진 엄청난 부자인 미국 여성 X 부인이, 여든의 나이에든 청년들을 사랑에 눈멀게 했던 니농 드 랑끌로 Ninon de l'Enclos처럼 남자를 정복하려 외출한다고 험담을 해댄다. 그녀의 파티는 단연 압권으로 파티 초대를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곳에 가면 입이 호사를 누리며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왕처럼 즐길 수 있다. 안주인은 쉰의 나이에든 처녀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킬만큼 정말로 아름다우며 그녀의 애교와 우아함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마음도 사로잡는다.

내가 궁정 집사 대리로서 있을 당시 황제가 가장 좋아하던 엄비가 의례상 마련한 여성들의 조찬에서, X부인은 인상적인 외모로 인해 그 자리에 초대받은 유럽 여성 중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 빼앗는 비결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총기가 있었으며, 호감이 가고 사회성이 풍부한 여성이기도 했다. 그녀 역시 자신이 돋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을 만큼 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두고 소문이나 험담이 있었는데, 이는 복을 타고난 여성에 비해 내세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서울의 국제적인 여성 사교계의 시기와 질투에 불과했다.

파티에서도 변리공사와 총영사, 영사, 선교사, 상인의 부인들로 이루어진 사교계의 중심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주인인 엄비가 아니라 그녀

였다. 이 자리에 남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남자라고는 10살짜리 영친왕과 궁정 의전 책임자인 교회경³⁸뿐이다. 그는 궁궐 대문에서 여성들을 맞이하며 영친왕은 그들을 접견실까지 안내하는데, 그곳에서는 엄비가 진짜 황후처럼 알현을 주도한다. 그녀의 곁에는 미국으로 홀로 떠나버린 장자가³⁸ 서울에 홀로 남겨둔 세자빈이 있었는데, 그녀는 호감 가는 외모를 가졌으며 양반 출신이었다. 두 여성은 여러 명의 궁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황후와 많은 궁녀들 모두 한복을 입었으며, 그러한 자리에서는 흔히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파란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대단한 미모라는 명성이 자자한데다 뜨거운 러브스토리로 외국인 여성 사교계에서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황후는 그야말로 실망 그 자체였다. 나는 그녀의 궁녀 중에서 훨씬 더 예쁜 몇몇을 발견했으며, 그녀들은 나를 매료시켰다. 다만 머리 뭉치만이 눈에 거슬리는데, 그녀들도 머리로 인해 자신들의 매력에 반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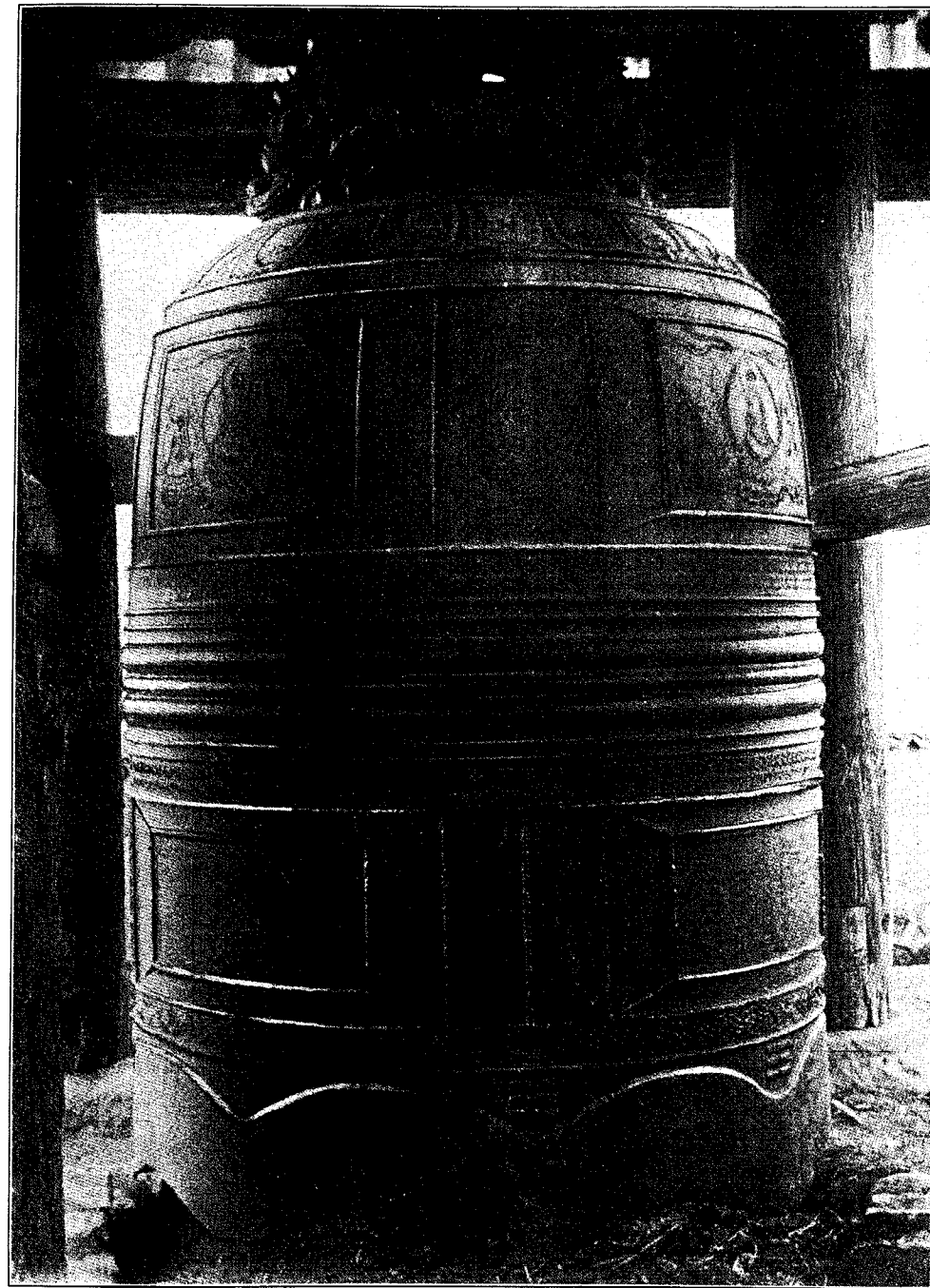
특수한 여성 집단인 궁녀들은 남자 구실을 못하는 환관의 감시를 받는 데, 그는 마치 불타오르는 검을 든 대천사처럼 살롱 문 앞 초소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남성들을 저지했다. 이제 식사가 마련되었다. 거기서는 유럽의 궁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의식이 거행된다. 황후는 이날 외국 사절 부인 중 서열이 가장 높은 프랑스 총영사 부인에게 자신과 함께 식탁으로 갈 것을 청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짝을 지어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식탁에서도 특별한 서열이 만들어졌으며, 음식의 서빙은 궁녀들이 맡았고, 궁녀 한 사람이 손님 한 명을 담당했다. 식당 홀에 남자 시종은 없으며, 그들

38 미국 유학을 떠났던 의친왕은 장자가 아니며 1906년 일본에서 귀국하였다.

은 음식을 문 앞까지만 날랐고 거기서부터는 궁녀들이 음식을 넘겨받아 귀빈에게 대접했다.

유럽식으로 먹는 음식은 유럽식 레시피에 따라 외국 요리에 정통한 조선과 중국 요리사가 만들었다. 식탁 위의 음식은 대부분 유럽의 파티에서 볼 수 있는 진미인 바닷가재, 캐비어, 연어 등이다. 여기에 조선 요리가 더해지는데, 매콤한 새구이와 동아시아에서만 잡히는 대하가 그것이다.

조선 여성도 말수가 적은 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조찬장에서 알 수 있었다. 황후와 그녀의 옆에 있는 세자빈은 몇몇 선교사 부인들이 담당한 통역의 수준에 따라 귀빈들과 대화가 잘되거나 안 되거나 했다. 그들은 초대받은 유럽 여성 몇몇과 여러 주제에 관해 활기찬 대화를 나누었다. 나 또한 궁정 집사 자격으로 황후와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엄비는 유럽의 관습과 예절을 비롯해 유럽이라는 외국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내가 보기에, 그녀의 정신적 지평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고립된 채 사는 동아시아 왕후의 그것처럼 협소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녀는 자신의 문화 영역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편견 없이 대하고 판단을 자제했으며, 그로 인해 뛰어난 이해력으로 귀납적 추론을 할 수 있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그녀로부터 초대받은 점전이나 오후 티타임에 여러 가지 일에 관해 그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녀가 낯선 것에 대해 평가를 할 때면, 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남편인 황제보다 정신적으로 확실히 뛰어났고 조선이 여러 분야에서 최근에 이룩한 발전은 그녀의 영향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독일 문화 개척자들

조선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유럽 문화뿐만 아니라 독일 문화도 이미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서울에는 독일어 학교 Deutsche Schule와 독일 음악이 있다. 독일어 학교는 많은 업적을 남긴 독일 영사 크린Krien의 작품으로 1898년에 세워졌고 교장은 포메른 출신 교사 요하네스 볼안Johannes Bolljahn이었다. 독일 음악은 독일 출신 악장 에케르트Eckert가 지휘하는 황실 궁정악단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그는 도쿄의 황실 궁정악단을 창설한 바 있다.

먼저 독일어 학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학교는 조선 전체를 움직인 개혁의 시대에 설립되었다. 그보다 훨씬 앞서서 정부의 동의하에 프랑스어 학교와 영어 학교가 이미 설립된 바 있으며 두 학교 모두 잘 운영되었다.

크린 영사가 조선 정부로부터 독일어 학교 설립에 관한 동의를 얻어내자, 그는 이미 도쿄의 여러 군사학교와 김나지움에서 10여 년간 훌륭하게 교육경력을 쌓아온 요하네스 볼안을 이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할 구상을 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특히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즉, 새로운 기관은 단순히 독일어 학습뿐만 아니라 독일의 수업제도를 조선에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했다. 게다가 그것은 독일 학생이 아니라 조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였으며 조선어를 할 줄 모르는 그는 통역관에 의존해 일을 처리해야 했다.

볼안 씨가 극복해야 할 난관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정치적인 문제들 또한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독일어 학교를 통해 독일 문화가 강하게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일본과 미국은 학교가 한동안 문을 닫도록 영향력을 행사

했다. 처리하기 난감한 기술적인 문제들도 발생했다. 학교에는 10~30세의 모든 연령대가 입학할 수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이미 기초 지식과 질서, 정형성, 복종 의식을 갖춘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요소와 이해, 성격, 행동에서 각기 다른 모든 연령대의 학생을 고려해 수업체계를 만드는 것은 기관의 책임자한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볼안 씨가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실로 탁월하게 해결했다는 것은 그가 교육자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가졌음을 말해준다.

볼안 씨가 나의 남편과 나를 초대해 그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이역만리 나라에서 모범적인 교육학자인 그가 누리는 커다란 명성이 우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마치 고국의 독일어 학교에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곳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훌륭하게 돌아왔다. 물론 이 능력 있는 교육자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입학을 제한했다. 따라서 독일어 학교 졸업장은 모든 학생에게 조선에서 직업이나 지위를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베를린 황궁에서 오랫동안 조국과 왕을 대표했던 한 외교관이 이 학교 출신이라는 것은 자랑거리였다. 독일어 학교의 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서울의 독일어 학교가 조선에 훌륭한 문화공급원이 되었다면 황제의 궁정악단 또한 이에 못지않았다. 중국과 일본, 조선에서는 음악을 불협화음이라고 하는데,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불협화음을 오래 들어야 했던 이들한테는 반쯤 문명화된 조선에 독일 음악의 전파가 갖는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프로이센 궁정 악장인 에케르트 씨는—조선 황제의 요청 때문이기는 했지만—궁정 악단을 만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했거나 유럽에서 외교관이나 그와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조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설립 당시 단원은 24

명을 넘지 못했으며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조선인이었고 그들에 대한 보수는 황실에서 지급했다. 교육받지 못한 아시아인들에게 유럽의 문화언어를 전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음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에게 음악과 연주 기법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악보는 교육받은 유럽인한테도 음악적 소양이 없으면 난해한 법이어서 배우지 못한 동아시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가사의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음감의 부족이나 악기에 대한 지식부족처럼 동아시아인은 음악 연주에 필요한 물리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경이롭기 그지없다.

따라서 궁정 악장 에케르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유례가 없는 노력으로 음악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음악가로 양성해 냈으며, 이는 유럽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각종 행사나 여름에 큰 공원에서 개최되는 야외공연에서 보여준 서울의 궁정 악장의 능력은 전문적인 음악 동호인들조차도 인정했다. 궁정 악단은 바그너의 서곡 Ouvertüren도 연주 목록에 올렸고 이는 서울의 음악 세계에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이다.



조선인의 본성, 기질, 의복

조선인의 본성은 본디 신의(信義)와 선량함이라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조선인은 혈통 상으로 일본인보다 더 가까운 이웃 중국인과 유사하다. 그들은 낯선 것이라면 모두 불신하며 더 나은 것을 경험해 불신을 거두기 전까지는 그로부터 거리를 둔다.

조선인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세상으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미혼자는 성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며 기혼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남자 대접을 받는다. 머리에 쓴 갓은 완전한 남성의 표현으로 결혼한 이후에 쓸 수 있다. 갓을 쓰면 머리 모양도 바뀌는데 머리카락은 정수리 위에서 한데 모아 상투를 튼다. 머리 모양이 형태를 잃지 않도록 그 위에 망사로 된 갓을 씌우거나 조선어로 망건이라 하는 손 너비의 머리띠를 두른다. 머리띠는 커다란 치장으로 여겨지는데 가운데에 호박이나 산호 같은 보석을 고정시키며, 보석은 독일에서 들여온 것을 특히 좋아한다. 지체가 높은 이들이나 관리들은 갓과 머리띠를 검은 말의 털이나 연사(練絲)를 꼬아 만든다. 가난한 백성은 쪼갠 대나무나 부드러운 나뭇가지로 만든 밀짚모자를 쓰고 다닌다.

돌로 된 단추가 붙어 있는 머리띠(망건)는 관리임을 표시한다. 머리카락을 고정해주는 머리띠는 매우 단단하게 동여매 이마에 선명한 자국을 남기며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한다. 그로 인해 머리띠를 한 사람들은 흔히 찌푸린 인상을 한다. 머리 위에 쓰는 장식인 갓은 넓은 바지와 함께 조선인의 외모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갓은 좁고 높은 관의 형태이며 동일한 소재로 된 넓은 테가 있다. 일반적인 갓의 소재는 검은 말 털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이다. 미세하게 저민 대나무로 이러한 모자를 만들기도 한다.

상중(喪中)인 조선인은 흰색 갓인 백립(白笠)을 쓰며, 비통함이 큰 경우에는 흰색 갓의 크기가 커져 상체 전부를 가릴 정도이다. 국상(國喪)에는 규정상 흰색이 아닌 담황색 두루마기를 입게 되어 있다. 머리 위의 갓은 턱 끈으로 고정한다. 이 끈도 장식하는데, 높은 관리들은 은색이나 호박 구슬로 펜 끈을 사용한다.

비가 올 경우, 조선인은 갓을 기름종이로 만든 덮개로 씌우거나, 형태나 색이 백립과 흡사한 지름이 거의 1m는 되는 우천용 갓을 쓴다. 우천용 갓과

함께 짚으로 만든 우비를 쓰며 이 우비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갓을 쓰는 것은 성인 남성들에게만 부여된 권리이며 여성과 아이들은 모자를 쓰지 않는다.

갓은 원래 관리와 양반의 표시였다. 그것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갓을 장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백립의 엄청나게 넓은 테두리는 통이 상당히 넓은 바지와 필적할 만하다.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통 넓은 의상은 입는 사람의 멋과 정중함을 표현한다고 한다. 하나하나의 의복 장식에는 모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선인은 상투만큼이나 이 의복에 자부심이 대단하다. 조선인은 일 할 때—물론 평범한 사람들만 그러하다—수건을 머리에 두르는데, 이는 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조선에서도 상류층과 하층민 사이에는 복장 차이가 없으며 색이나 소재에서 부와 신분이 드러난다. 모양과 형태에서는 노소와 빈부의 차이가 없다. 넓은 바지는 조선인의 의복에서 중심이 된다. 바지는 착용감이 좋은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소재로 만들어진다. 무릎 아래 복사뼈 둘레는 버선 위를 덮어 동여맨다. 버선은 삼베로 꿰매어 만들며 여름에도 솜으로 두텁게 채워 발 모양을 없애 날씬한 사람조차도 안짱다리처럼 보이게 만든다.

조선인은 상의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짧은 저고리는 면이나 삼베, 부자의 경우에는 비단으로 만들며 가슴 위 오른쪽에서 기다란 고름으로 동여맨다. 조선인은 단추와 단추 구멍을 알지 못한다. 소매는 넓고 헐렁헐렁하다. 목둘레 전체를 감싸는 동정은 안에 입은 옷이 보일 정도로 낮다.

명절이나 잔칫날 복장은 복사뼈에 이를 만큼 긴 두루마기로 완성되는 데 이것 역시 다른 옷과 마찬가지로 흰색이다. 조선인은 의복에서 모자를 가

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체 중에서 머리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 의상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며 여기에 대부분의 돈을 쓴다.



조선의 여성—부인과 첩

조선의 여성은 일반적으로 편안하거나 위엄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며,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성은 결혼한 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혼전에 사망한 여성은 무덤에서도 평안하지 않다는 관념은 조선에서 미혼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 조상의 영면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녀의 시신은 일반 공동묘지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묻고 주로 시골 길가에 묻는다. 행인의 걸음과 가축의 발굽이 구천을 떠도는 망자의 혼을 점점 더 땅속 깊숙이 누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선의 부모들은 특히 딸을 가능한 한 일찍 혼인시키려 한다. 사내아이의 경우 8~14세, 계집아이의 경우는 10~13세에 결혼하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부부의 나이 차이는 유럽과는 정반대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다. 결혼식 또한 여성의 지위를 잘 보여준다. 신랑은 결혼식 날에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조선인에게 일생에 단 한 번 입는 것이 허락되는—빌려온—관리 복장으로 차려입는 반면, 신부는 전혀 다르게 치장한다. 신부의 얼굴을 흰 분가루와 선흥색으로 화장한 뒤, 눈꺼풀은 종이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인다. 신부에게는 자신의 배우자와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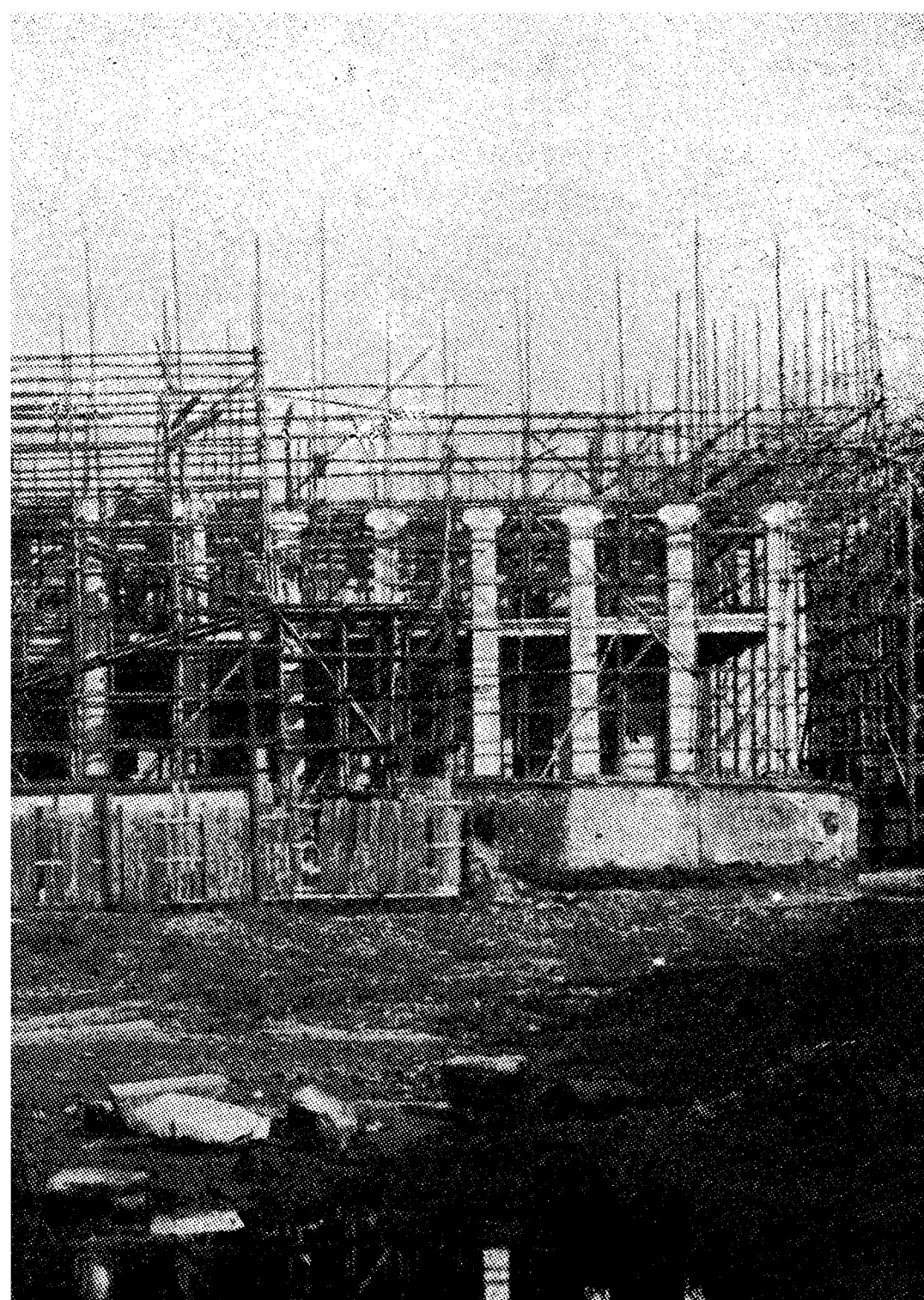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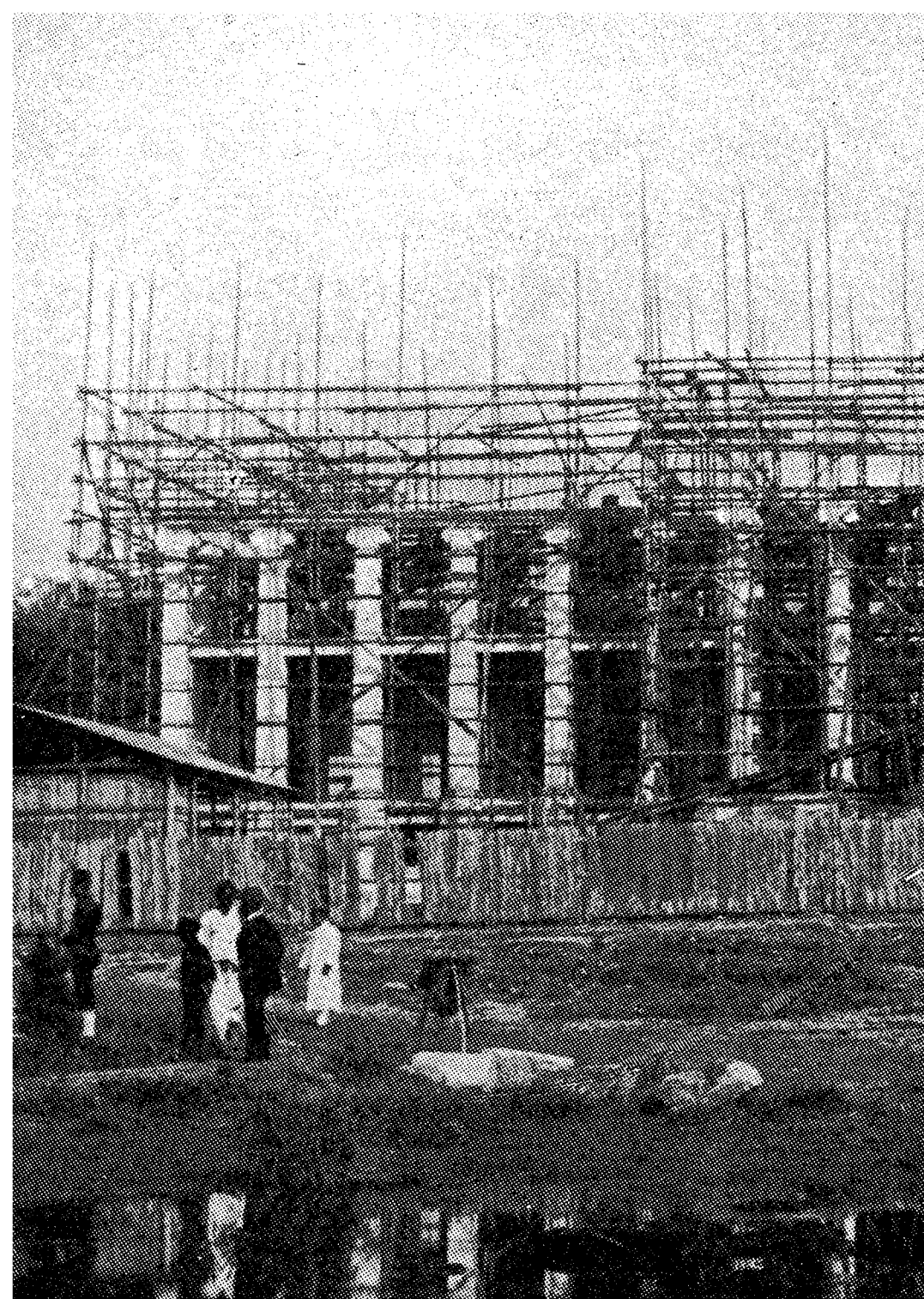


그림 28. 건축 중인 황제의 새 궁전(덕수궁 석조전)

면, 신부는 빛 한줄기 보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결혼 후, 처음 열흘 동안 어린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 어린 여성과 그녀의 가족 전체는 커다란 모멸감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까지 침묵하는 것은 훌륭하게 교육받고 자랐다는 표시로 간주되어 칭찬받는다. 그로 인해 어린 여성들은 석 달이나 심지어 넉 달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미 언급한 대로, 조선에서 결혼은 매우 진지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일부다처제가 성행한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 상당 부분 허용된다. 결혼한 남성은 자신의 재력이 허용하는 만큼의 첩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관습에 따른 제약도 있는데 본부인은 남편의 첩에 대해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첩들은 본부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수도인 서울의 거리에서 여성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자주 눈에 띄는데, 시골과는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혼자 다니지는 않는다. 이방인에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복장으로, 오리엔트의 이슬람 세계처럼 얼굴을 가리는데, 이는 여성의 순결이 남자의 욕망 어린 시선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쁜 조선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베일이 아니며 머리에 고정된 밝은 녹색의 장옷이 베일을 대신한다. 소매가 달린 장옷은 턱에서 함께 모아진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바람으로 인해 장옷이 벗겨지기도 하며, 이 경우 지나가는 남자의 시선은 감춰야 할 것을 보게 된다.

작고 귀여운 조선 여성의 평상복은 몸매를 최대한 가리고 없애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체는 두 벌의 바지 속에 감춰지고 겹 바지는 남성의 경우처럼 통이 상당히 넓다. 그 위에 모든 것을 가리는 넓은 주름치마를 입는다. 이와는 반대로 상체를 가리는 저고리는 허리부터 가슴 위쪽 선까지를

덮지 못할 정도로 짧는데, 목선은 정반대로 우리보다 몇 센티미터 더 깊게 파여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거의 강박적으로 가리는 젓가슴을 이곳 여성들은 가리지 않고 다닌다.

여성 의복의 색상은 단색으로 이는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치마와 저고리는 남성 의복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흰색이며 그 탓에 때가 잘 타는 옷은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신발은 거리의 오물을 집안으로 들여오지 않기 위해 문지방에다 벗어둔다. 방 안에서는 맨발이나 버선발로 돌아다닌다.

조선 여성의 본업은 무위도식이라는 주장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 반대가 정확하다. 조선 여성은 아주 탁월한 바느질 능력을 갖췄으며, 자신의 옷은 물론 남편과 가족 전체의 옷을 직접 만든다. 심지어 집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삼베 천도 직접 만든다. 여성 노동의 질은 아주 뛰어나며 정확성은 기계에 견줄 만하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란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늘과 골무이다. 가족으로 된 골무를 집게손가락에 끼우는 것과 바늘귀가 측면에 있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실용적이다.

여성들은 삼베옷의 세탁도 집안에서 해결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양젓물과 물을 사용하며 천이 광택 나고 기름때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힘을 들여 세탁한다. 하층민 여성들은 강이나 하천에서 빨래하며 빨래터는 여러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빨래를 마무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탁물을 돌 위에 얹은 후 문질러 편 다음, 다듬이질 방망이로 마른 상태에서 두들긴다. 다듬이질은 다림질을 대신한다. 일정한 리듬으로 다듬잇방망이가 세탁물을 두드린다. 빨래하기 좋은 보름달이 뜬 밤에는 새벽까지 다듬이질 방망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독일에서 보도 포장할 때 나는 돌 두드리는 소리와 흡사하다. 중간에 들리는 처녀와 아낙네의 즐

거운 노랫소리는 방망이의 단조로운 리듬을 끊어준다.

복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보름달 빛이 사람의 옷에 비치면 아픈 사람이 낫는다는 미신이 있다. 많은 것을 중국인과 공유하는 조선민족의 관습과 풍습이 대개 그러하듯, 이러한 미신이 낭만과 시적인 분위기를 물씬 가진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조선인의 주거

조선의 주택은 양증맞게 작으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마치 장난감 상자에서 나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몸을 숙인 자세로만 출입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방에서는 바닥에 꾸그리고 앉거나 앉은 채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천정 역할을 하는 돛자리에 머리가 부딪치기 때문이다. 조선의 가옥에는 독일에서와 같은 천정이 없고 서까래는 노출되어 있으며 학식 있는 집주인은 그림을 그리거나 화려한 종이를 붙이기도 한다. 집을 따라 길게 나 있는 마루는 동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튀어나온 지붕이 그 위를 덮는다. 무더운 계절에는 낮에 가족 전체가 이곳에서 지내고 심지어는 밤에도 이곳에 있는 일이 흔하다. 격자 모양에 기름 먹인 종이를 붙인 문의 윗부분으로만 빛이 들어오는 오두막도 있다.

그러나 상당히 잘 지어진 집도 있다. 다만 그러한 건물은 많지 않고 주로 지체 높고 돈 많은 사람의 집이다. 건물은 중국 스타일로 지붕은 높고 예쁘게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중국 스타일의 화려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은 두 개 내지는 여러 개로, 나란히 위치한다. 가운데 문이 정문으로 집주인이나 특별한 손님만이 드나들 수 있는 일종의 개선문과

같은 의미가 있다. 동문은 집안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이용하며, 서문은 하인용이다.

서로 겹쳐진 세 개의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두 건물 사이에 마당이 있는 주택도 있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문을 세 개 거쳐야 하고 이 문들은 손님맞이와 관련해 여러 의미를 갖는다. 집주인이 첫 번째 문에서 맞이하는 손님은 주인과 동급인 귀빈이며, 두 번째 문에서 맞는 손님은 이보다 지체가 낮은 손님이며, 나머지 손님들은 문지방에서 맞는다. 손님을 배웅할 때도 동일한 의식이 적용된다.

지체 높은 사람의 집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으며, 침실과 거실의 바닥은 벽돌이나 돌이며, 난방이 가능하다. 바닥 아래에는 하수도 모양의 작은 도랑이 지나가고 도랑 사이는 진흙으로 채워진다. 방바닥은 집 밖에 있는 부엌에서 가열된다. 열은 아궁이로부터 이 공간 안으로 유도되고 부엌의 맞은편에 있는 굴뚝은 연기를 밖으로 내보낸다.

그러한 방식으로 데워진 방에 있는 것이 쾌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는데, 대개 느슨하게 만들어진 방고래 탓에 연기나 재가 방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에 그러한 공간에 있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데,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 계절에는 다른 주거 공간을 찾는다. 부유한 사람의 저택 방에는 전통적인 돛자리 외에도 값비싼 모피가 바닥에 깔려 있다. 방의 벽은 독특한 붉은 벽돌로 마감하고 그 위에 비단을 펼쳐 장식하거나 지도를 붙여 놓는다. 손님방에는 대개 어린 대나무 그림이 있고 그림은 그러한 방에는 거의 예외 없이 있는 장식이다.

같은 신분의 중국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깨끗한 조선인의 실내공간에는 가구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가구를 쓸 일이 전혀 없는데, 지체 높은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나 용케 구경할 수 있다. 옷가지나 여

러 물건조차도 옷장이나 그와 비슷한 용기에 보관하지 않으며 상자에 포장해둔다. 침실에만 높은 장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옷걸이 대용이다. 그 위에 집주인의 옷을 건다. 여성들은 큼직한 가방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자신의 각종 물건을 자물쇠를 채워 보관한다.



종교생활 - 제사 - 선교

조선을 이는 사람들은 조선인에게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많은 조선인은 종교라 할 수 있는 것을 조상숭배로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인의 신에 대한 숭배는 조상숭배에서 비롯되며, 이는 중국인과 매우 유사하다.

조선인은 나이가 들면 대개 오래된 샤머니즘을 믿는데, 이는 나무, 바위, 미신적인 풍습을 숭배하는 독특한 민속종교이다. 가장^{家長}은 선산이 없을 경우 살아 있는 동안에 사후의 조상숭배와 관련된 여러 복잡한 행위들을 통해 뫼자리를 물색한다. 이때 여러 중요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뫼자리는 산이나 언덕의 꼭대기이다.

묘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묘지에 나무를 심으며, 나무들은 시간이 흐르면 숲을 이룬다. 묘지를 훼손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산소 주변에 자기 가족의 묘를 만드는 것은 금지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은 가족이 죽게 되면 사망과 관련해 많은 규정과 관습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는다. 예를 들면, 묘를 만드는 데도 특별한 의식이 치러진다.

먼저 길일을 잡으며, 이 날 상주^{喪主}는 일찍부터 곡을 하며 묘지로 향하며, 그의 뒤를 친지들과 무당^{Zauberer}이 따른다. 무덤 북쪽에는 수호신을 의미하는 '투디^{Tudi}'라고 하는 높은 비석이 위치한다. 무덤 가장자리에는 작은 막대기들을 꽂는데, 축문^{祝文}을 읽는 축관^{祝官} 네 명이 정 중앙 막대기 옆에 선다(그곳에는 각종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이때 모든 참석자들은 절을 하며, 시종들은 무릎을 꿇고 제주^{祭酒}를 올리고, 큰 항아리 안에 축문을 태우고, 향을 피운다. 시종들은 다시 한 번 큰 절을 한 뒤, 일어서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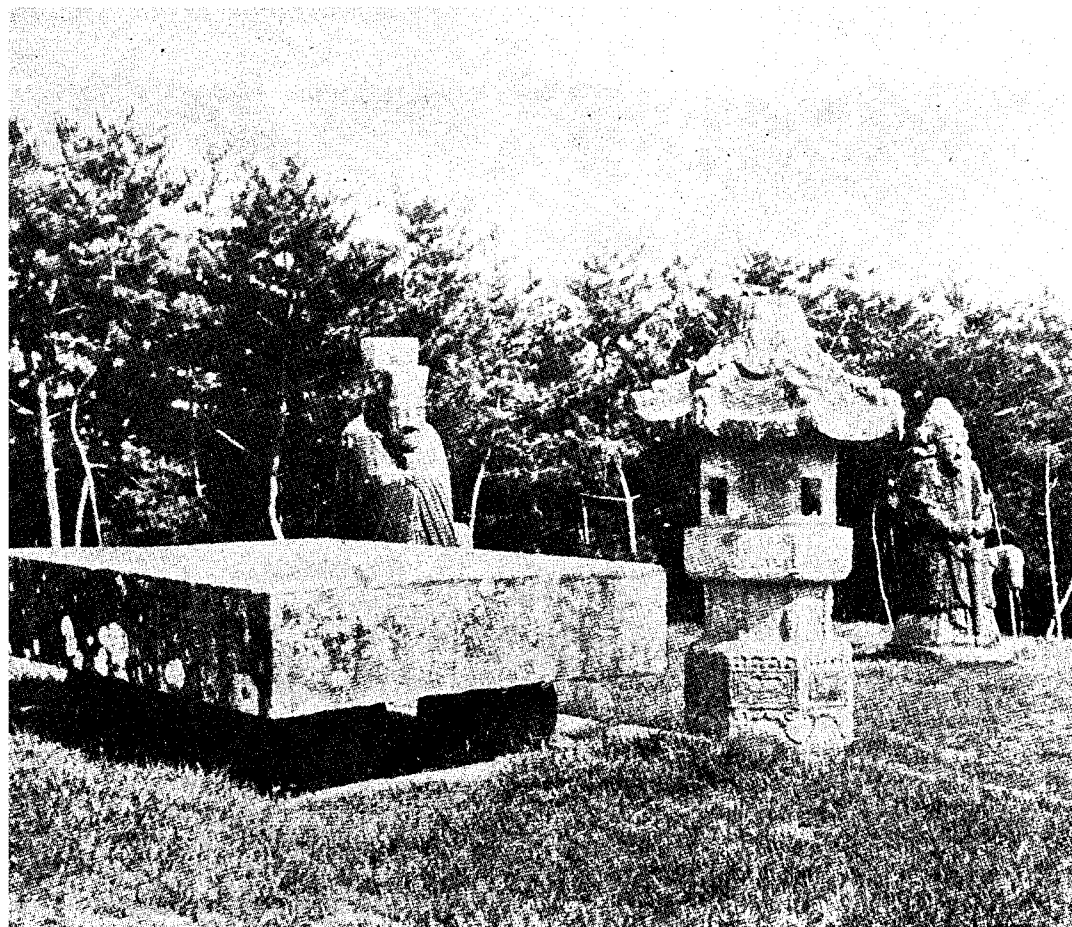


그림 29. 고위관리의 묘지

시 무릎을 꿇는다. 이어서 측관이 축문을 큰 소리로 낭독한다. 모든 참석자들은 축문 후에 다시 절하고, 곡을 하는 상주가 절을 두 번 한 후, 묘지를 파기 시작한다. 조선에서는 묘를 깊이 파지 않기 때문에 묘를 파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무덤의 바닥에는 석회를 깔고 모래를 흩뿌려 덮는데 이는 아마도 위생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 만든 무덤 근처에 조상의 묘가 있다면, 상주는 조만간 후손들의 성묘가 있을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그곳에도 제사음식을 올린다. 모든 장례는 뒷자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당이나 점쟁이가 정해주는 ‘길일’에 거행한다.

하관_{下棺}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의식이 선행된다. 저녁에 고인_{故人}의 관은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빈소로 옮겨지며, 빈소는 집 안이나 집 가까운 곳에 마련된다. 동 트기 훨씬 전에 벌써 장례가 시작되고, 의례는 다시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곡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절차는 해가 뜬 뒤에 다시 한 번 반복되며, 이때야 비로소 참석한 여성들은 자리를 뜰 수 있다. 이어서 관은 넓은 상여에 실린다. 상여는 검고 연한 청회색 또는 빨강색 비단 천으로 덮으며, 고인의 이름과 지위를 알리는 깃발을 단다. 고인의 묘지는 우리나라의 군인 장례식에서 헬멧을 놓는 것과 똑같이 관위에 놓인다. 시신과 함께 고인의 머리카락을 관에 넣어주는 것은 정말 고유한 풍속이라 할 수 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모두 매일 단장할 때마다 빠진 머리카락을 꼼꼼하게 모아둔다.

이제 장례 행렬이 시작된다. 행렬 앞에는 짐승 모피_{Tierfellen}를 걸치고 끄찍한 모양을 한 나무 탈을 쓴 사람들이 선다. 그들이 하는 일은 고인한테서 악귀를 쫓는 것이다. 껌작 하나가 관 바로 앞에서 운반되는데, 여기에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의복이 들어 있다. 고관대작의 장례식일 경우, 행렬 앞에선 무리와 상여 사이에 대나무로 만들어서 종이를 붙인 실물 크기의

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묘까지 가져가서 그곳에서 불태워진다. 태운 재는 조심스럽게 무덤 위에 뿌린다. 특히 지체가 높은 사람의 무덤에는 조선의 화폐 모양을 한 종잇조각을 뿌리는데, 이는 독특한 풍습이다. 이러한 풍습이 어떠한 이유에서 생겨났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무덤에서의 의식은 아주 짧다. 시신의 머리가 북쪽으로 향하도록 관이 놓이면, 고인의 아들 및 친지들이 포함된 조문객들은 모두 대성통곡을 시작한다. 사람들은 관이 천천히 내려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절을 한다. 이어서 모든 조문객은 서열에 따라 무덤 주변에 무리를 지어 선 후 묘비인 ‘투디’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묘비와 무덤 주변에는 제사음식, 과일, 제주_{祭酒} 등이 차려진다. 다음 측관은 묘비에 향을 피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엎드려 망자를 특별히 잘 보살펴줄 것을 기원한다. 이어서 흙으로 무덤을 채워 불룩하게 만든다. 무덤을 토사_{土沙}로 채울 때 울리는 낮은 북소리는 동시에 장례의 끝을 알린다.

고인의 옷이 들어있는 궤는 가족의 집으로 다시 갖고 오며, 추모기간 동안에 잘 보관되고, 궤 앞에서 제를 올린다.

이후 몇 주 동안 사람들은 독일에서와 같이 무덤에 꽃을 갖다 놓으며, 무덤 주변이나 옆에 사람과 동물의 입상_{立像}을 세운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무덤에 반드시 사당_{祠堂, Kapelle}을 만든다.

묘비는 독일처럼 망자의 이름, 출생한 해와 사망한 해를 기록하지 않고, 일종의 위패 기능을 한다. 조선의 미신에 따르면, 위패에는 망자의 혼이 산다. 위패는 보통 밤나무로 만든다. 이 나무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개 짓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 숲의 가장 먼 곳에서 가져온다. 돈이 없는 가난한 서민들은 판지로 위패를 만들어 쓴다. 위패의 크기는 길이가 대략 30cm, 너비가 3cm, 두께 1cm이며,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칠하며, 망자

의 이름이 중국 한자로 적혀져 있다. 작은 위패 옆에는 망자의 영혼이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문이 있다. 위패는 조선에서 일종의 성물로 인식되어, 부유한 사람들은 집 안에 보관하며 상중에는 그곳에 제물을 올린다.

조선인들은 가족의 묘를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여긴다. 낯선 사람이 묘지에 접근해 이러저런 누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소를 지킨다. 묘지의 감시와 관리는 부자나 지체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한다. 조선인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묻혀있는 곳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묘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느니 차라리 굶는다. 만약 묘지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면, 망자의 유골은 가족에 의해 파묘되어 다른 곳으로 이장된다.

망자에 대한 숭배는 구정에 지내는 차례^{차례}에서 절정에 이른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새해에 조상에게 풍족한 식사를 올리기 위해 번 돈의 일부를 떼어둔다. 차례 상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음식들이 차려진다. 고기, 생선, 나물, 각각 다른 국 다섯 그릇, 닭고기, 과일, 쌀, 마오^{Mao}라고 하는 흰색 해초 한 그릇, 술 한 대접 등이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향내 나는 종이를 태운다. 조선인은 향을 피우는 동안 망자의 혼이 돌아온다고 믿는다.

조선인은 제사 전날 밤을 밖에서 보낸다. 그때는 때가 타지 않은 깨끗한 옷을 입는다. 닭의 첫 울음은 제사음식이 차려진 상 앞에 있는 촛불을 붙이라는 신호다. 제상에 올리는 음식은 가운데에 위패를 둘 자리를 비워둔 채 차려진다. 제주들이 절을 하면서 차례가 시작되며, 조상에게 제사음식을 너그러이 받아주기를 간청한다. 식구들은 이러한 식으로 망자의 넋에게 예를 표한 뒤 뒤로 물러난다. 이때 문이 닫혀져 있는지 살핀다.

망자가 제상 음식을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될 만큼 시간이 경과하면, 설 새 없이 몸을 굽히며 조상님이 남긴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서 제사상 앞으로



그림 30. 서울 도착 후 축제에 참석한 이토 히로부미(1906년)

다가온다. 사람들은 예를 올림으로써 운과 부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남는 것은 소화불량과 빈 주머니뿐이다. 새해의 차례는 가난한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애도 기간은 3년간 지속되는데, 처음 2년은 깊은 애도의 시간이고, 마지막 1년은 절반정도의 애도의 시간이다. 자식들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3년 동안 음식과 담배를 올리며, 고인의 집에서 뿐 아니라 무덤에도 올린다. 이처럼 긴 애도기간은 살아있는 자가 고인에게 표하는 경건함의 표현이다. 이러한 경건(敬虔)을 왕이나 황제도 행함으로써 모든 신하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정말 운, 번영, 나라와 정부의 안녕이 망자의 호의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제사가 1년에 6일로 한정된다. 즉, 네 번의 민족명절과 고인의 생일, 사망한 날이 그날이다. 조선인들은 제사 날을 매우 엄격하게 지킨다. 만약 고향과 아버지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주 먼 길이라 하더라도 이날은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하러 온다. 경건함이 가득한 이 관습을 거스르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거스르는 자는 고향에서 쫓겨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이러한 특별한 제사의식은 물질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미신을 믿는 조선인들은 망자가 후손들에게 복수하지 않도록 제사를 통해 그와 화해하려는 부차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농촌에서는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데 본보기가 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작은 사당을 짓는데, 이는 제사와 관련해 좀 지나친 경우라 할 수 있다. 조상을 기리는 것은 대부분의 조선인들한테는 실제 종교이자 종교행위이며, 그것은 조선인에게 완전히 체화된 나머지 기독교 선교사들의 포교를 아주 어렵게 하며 심지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다.

가톨릭의 선교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 이후로 조선인들이 가톨릭의 포교를 매우 강하게 반대한 것이었다. 가톨릭 역시 이와 비슷한 의식을 행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유교적인 관리들도 임종의 순간에 행하는 불교 의식은 가톨릭의 종부성사(終傳聖事) 및 성체성사(聖體聖事)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중병에 걸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가난한 사람들도 임종기도와 제물을 올린다. 이때 인근의 암자나 절에서 이를 대신할 불교 승려를 데려온다. 이는 선교사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는 이 상황에 개입해 갖고 있는 훌륭한 약으로 중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고, 또한—그의 주된 임무인—많은 영혼을 구원한다. 지구 다른 편에서 온 동료들보다 더 실용적으로 사고하는 미국 선교사들은 영혼의 구원을 임종 의식에서 가장 중시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이유가 포교에 열정적인 이 선교사들이 모든 영혼 구원에 일정부분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도된 조선인의 종교적인 감정이 진정한 신앙으로 깊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 확인된다. 즉, 최근 나라 안에서 소요가 발생하자 다수의 조선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 이유는 개종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조선에서의 집요한 선교 활동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교회 건축이 번창하고, 서울만 해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자랑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가톨릭과 미국 장로교 교회가 규모와 건축 면에서 탁월하다.

신자들이 반세기 전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조선에서는 기독교 선교 활동이 대체로 매우 번영하고 있다. 기독교가 조선으로 전해질 때에 사람들

은 확실히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인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중국의 경제 도시인 봉천奉天(선양의 옛 명칭)에 있는 선교병원에서 자란 한 조선인이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당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약과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였고, 그러한 방식으로 기독교 선교 활동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 후 50년이 흘러 성경과 선교사의 숫자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였다.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 선교사들의 숫자만 230명이 되었고, 그들 중에 단지 15명이 영국 출신이고, 나머지는 미국인들이다. 이상하게도 나는 조선에서 단 한명의 독일인 선교사도 만나지 못했다. 독일의 선교 활동은 가장 좋은 접착 시기를 놓친 것이 분명하다.

현재 미국인들의 선교 활동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 이제는 조선 전 지역에 걸쳐 퍼져있다. 미신이 가득하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나라의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열성분자들과 전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이 나라에 만연해 있는 미신과 맞서 싸우는 것을 마땅히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악한 영의 존재와 무당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뿌리박힌 미신은 힘들고 천천히 근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온 앨리스 루즈벨트 양과 조선 황족의 묘지에서의 환영식

내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즈벨트 Alice Roosevelt 양과 약혼자 롱워스 Nicholas Longworth 씨가 조선을 방문했는데, 그

들의 서울 방문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이유인즉슨, 특이한 환영장소 때문이고 또한 이 고매高邁하신 미국 여성이 환영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남긴 복잡한 인상 때문이다.

미국의 이 커플이 1905년에 동아시아가 포함된 세계여행을 떠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들은 일본 천황의 궁전에 머무는 동안 조선 황제로부터 서울을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초청 수락과 서울 도착 사이의 시간이 너무 빠듯했기 때문에 행사 준비를 제때에 마치기 위해서는 의전 담당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힘이 모두 소진될 수밖에 없었다. 손님이 묵을 공간에 필요한 필수 실내 장식품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가구를 조달할 경비도 부족했다. 그러나 설사 경비가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필요한 실내 가구들을 조달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왜냐하면, 서울은 이 고위층 손님들을 위한 가구들을 순식간에 조달할 수 있는 상점들이 있는 유럽의 도시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님들과 수많은 수행원을 위한 음식 공급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좀체 판단력을 잃지 않던 몇몇 궁전 관리들조차도 우왕좌왕했고 어리둥절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결국은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고 손님을 모실 새 궁전의 방들이 제때에 호화롭게 장식되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유럽인과 미국인 사회에서 미국 대통령의 딸인 앨리스 양을 직접 보려는 호기심이 너무 커서 여타의 감정이 파고들 데가 없었다. 이 커플의 임박한 방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었다. ‘앨리스 공주’(대통령 딸을 은근히 조롱할 때 쓰는 호칭)에 대한 온갖 외설적인 이야기와 그녀의 괴팍한 성격과 비판 받을 만한 행동이 주된 화제였다. 미국의 자국민들도 그녀를 꼬집어서 “그녀는 우리가 말하는 숙녀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미국인들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숙녀가 지금 여행의 수행원이자 약

혼자인 룡위스 씨와 함께 새롭게 단장한 황궁에 들어서게 된 거라고 말했다.

미 연방 대통령의 딸에게 좀 더 특별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황제는 죽은 황비의 무덤가에서 손님을 위한 잔칫상을 베풀고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였다. 황궁의 의전에 따르면, 이런 식의 경의 표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거나 특별 환영하는 국민에게나 베푸는 것이다. 선조와 조상을 우러러보는 조선 민족의 감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행사가 얼마나 이례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 진가를 알 것이다. 조상의 묘지는 조선인에게 성스럽고 신성한 곳으로 통한다.

미국 대통령 딸이 주동이 되어 당시 황후의 무덤에서 벌어진 장면은 몹시 불쾌한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황후의 묘지는 수도 서울에서 대략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릉에 있는데, 도시의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조성된 숲에 에워싸인 묘지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고 기괴한 신의 모습을 한 석상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

앨리스 루즈벨트 양은 영접을 받을 만큼 고위층 숙녀 분이셨기 때문에, 황제의 외빈접대 담당 대리였던 나는 이 특이한 장소에서 조선 황제의 이름으로 환영식을 베풀라는 하명을 받았다.

나는 필요한 그릇과 음식 및 음료를 준비하여 (이 식사에서는 찬 음식만을 준비했는데) 시중드는 하인의 일부를 먼저 보낸 다음, 황제께서 귀빈을 영접하라고 보낸 고위 관리들과 대동해서 천천히 움직였다. 대략 20명의 조선 고관대작들과 궁전 관리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가마를 타고 나와 함께 황후의 묘소로 갔다.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던 통역관 고^코씨는 궁중 의전에 따라 걸어가야 했다. 이 연회에 나온 모든 참석자는 관복을 갖추어 입었고, 심지어 내가 탔던 녹색 가마를 든 8명의 가마꾼조차도 노란색 계통의 연회복을 입



그림 31. 서울의 미국공사관 정원에서 앨리스 루즈벨트 양과 약혼자 룡위스

있고 빨간색 띠를 두른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우리가 황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벌써 상당수의 외교단과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 있었다. 수많은 궁정 관리들을 비롯해서 궁정 의전 담당관 고희경 씨, 민영환 장군, 그리고 조선인 고관대작들이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환영식장에 빙 둘러서 있었다. 그 사이에 궁정악대가 밝은 가락을 연주했다. 아마도 참석자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이 가락은 연회 장소와도 어울리지 않았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연회의 성격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갑자기 모래 먼지가 크게 일더니 그 사이로 우아한 기마행렬이 나타났다. 그것이 사절단과 함께 나타난 미 연방 대통령의 딸 ‘엘리스 공주’였다. 그녀의 옆에는 약혼자인 룡위스 씨가 있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놀랄 만한 순간이었다. 대통령의 딸은 붉은 승마복에다 몸에 착 달라붙은 승마용 바지와 반짝거리는 승마용 장화를 신었는데, 오른손에는 승마용 채찍을 들고 입에는 시가를 물고 말을 몰고 달려온 것이다. 대단히 독창적이긴 했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비록 사람들이 엘리스 루즈벨트를 조금 다르게 생각했었지만 말이다.

그들이 황후의 무덤가에서 내리자 음악이 멈추면서 환영식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나는 내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이 고귀하신 숙녀 분께 인사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엘리스 공주’는 나와 내 수행원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시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담긴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히려 무덤을 지키는 신과 동물을 새긴 석상이었다. 그녀는 훌쩍 뛰어 승마 자세로 거상에 올라타고서 룡위스 씨에게 손짓했다. 그러자 룡위스 씨는 사진기를 재빨

리 꺼내더니 이 진기한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³⁹ 조선의 황실 묘소에서 발생한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이 장면은 정말 미국식 기질 때문에 일어난 장면이었다.

이 고통스러운 인사 시간 동안 사방에 얼음같이 차가운 침묵이 지배했다. 여기저기 아연실색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특히 조선의 고관대작들은 당연히 이곳에서 미국 숙녀가 보여준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에 노발대발했고 상처를 받았다고 느꼈다.

이런 모독 행위 때문에 발생한 위태로운 상황은 때마침 내놓은 차와 각종 진미 덕분에 간신히 넘어갔다. 손님들이 아주 맘에 들어 했다. 그런데도 ‘엘리스 공주’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그 어떠한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서울 주재 미국 총영사 부인인 모건 부인과만 잡담을 했고 삼폐인과 다른 진미 요리를 실컷 먹었다. 그런 뒤, 환영식은 모두 허사로 끝났다. 갑자기 그녀는 말에 안장을 놓으라고 명령한 다음, 마치 버팔로 밀처럼 수행원들과 함께 쏜살같이 사라졌다.

대통령의 딸이 미심쩍은 면접시험을 그렇게 망치고 난 후에도 계속 조선 황제의 손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게 된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연회에 그녀는 직접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를 대신하도록 약혼자에게 일을 맡겼다. 그녀가 서울에 머문 시간은 짧

39 대한제국을 방문한 T.루즈벨트의 딸 엘리스 루즈벨트가 크뢰벨의 서술처럼 실제로 명성황후의 무덤인 홍릉의 석물 위에 올라가는 무례를 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크뢰벨과 엘리스의 약혼자였던 룡위스 간에 논쟁까지 있었으나, 2007년 코넬대학 도서관에서 엘리스가 황후릉을 호위하는 석양(石洋)에 올라타고 찍은 사진이 발견됨으로써 사실로 밝혀졌다. 엘리스를 포함한 미국 외교사절단에 대해 대한제국은 최대한의 환대로 지원을 호소했으나, 미국은 한국에 오기 직전 일본에 들러 카쓰라-테프트 밀약(1905.7.29.)을 통해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화를 이미 승인한 상태였다.

왔지만, 조선인들에게 그녀의 행동은 북미의 여성교육의 공적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경고하는 사례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위기의 날들

그사이에 조선의 정치적 지평선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드리워진 뇌운은 한층 더 위협적으로 몰려왔다. 그러나 조선 민족 안에서는 동이 트기 시작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가 바로 황제였다. 황제만이 이웃 나라 일본에 대해 무책임할 정도로까지 과도한 신뢰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신뢰감 때문에 일본이 그의 황권에 개입하든가, 심지어 그의 황위를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일본에 속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 지배에 대한 의도를 금세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일본의 전함들이 제물포항에 도착했고 일련의 일본 장성들과 장관들, 고위 관료들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조선의 수도 서울에 즉각 입성했다. 그러자 변혁 운동은 스스로 준비한 꼴이 되어 버린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런데도 황제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조선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황제는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보였고 그들은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환대하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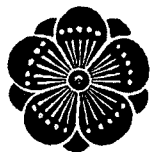
황제는 거의 매일 몇몇 거물들을 알현했다. 어느 날 하세가와 長谷川好道 일본 장군이 60명이 넘는 부하를 데리고 황제를 알현하겠다고 했을 때야 비로소 황제는 자신의 황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조선의 궁궐 수비대 옆에 일본 군대와 장교들이 서 있는 것

을 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든 황제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예의 주시했다. 하세가와 장군은 황제를 알현할 때 대규모 호위 부대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황제가 위압감을 느껴 일본의 요구와 바람에 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속셈이 분명했다. 그들의 요구와 바람은 대체로 황제는 폐위시키지 않고 조선의 행정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려는 것이었다. 이 목표가 수차례의 황제 알현을 통해 일본 사절단이 준비한 방안의 핵심 사항이었다.

일본은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는 세력을 얻기 위해 조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세도가, 정치가들과 교섭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총세무사 맥리브 브라운 ^{Mcleavy Brown}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 속했다. 맥리브 브라운은 일본 대신 하지와라와 함께 황제를 알현했을 때, 이제 자신은 관직에서 물러나고 향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군주에게 고했다. 물론 이것은 단지 핑계였다. 그러나 어쨌거나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하고 싶었던 브라운의 의도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가 떠난 뒤, 일본인 소가 ^{Soga}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어느 날, 당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 정치가이자 일본 국무의 지도자인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가 등장했다.⁴⁰ 그의 서울 방문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그리고 고령의 일본 정치가를 위한 가능한 한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라는 조선 황제의 바람이 하명되었기 때문에, 이 환영식 준비하는 일에 전혀 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준

40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11월 9일, 일본 천황의 특사 자격으로 내한하여 11월 10일 친서를 봉정하였다. 이후 고종이 계속 접견을 미루자 11월 15일 오후 3시 고종 황제를 알현하고 조약 체결을 압박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정부 대신들을 모아놓고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11월 17일 밤 8시에 하세가와 주차군 사령관을 대동하고 입궐한 이토는 고종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을 협박하여 18일 새벽 1시경에 협약 체결을 선언하였다.



Seoul le 19 Septembre, 1905.

DINER :

Potage pointes d' asperges
 Poisson roti aux Champignons
 Pigeons aux Olives
 Paté de foie gras en aspic
 Filet braise aux Truffles
 Asperges en branches—Sauce Hollandaise
 Roti, Gigot de Mouton
 Salade
 Glace d' Ananas
 Fromage
 Desserts assortis
 Café — Cognac
 Liqueurs.

비를 제때에 끝마치기 위해 우선 이토와 30여 명의 사절단을 위한 영접실과 거실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했다. 나는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 밑에서 일할 하인들까지도 짜야 했다. 이런 하인 부대를 부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위층 손님과 수많은 수행원에게 필요한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궁중 외빈접대 담당관 손탁 양의 집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는 이미 외국의 여러 영사들과 사절단들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였다. 그는 조선의 궁정에서 3주간 머물도록 예정되었고 황제의 하명 덕분에 대단히 성대하게 대접받았다. 연회가 연이어 열렸고 고위층 손님과 동반 손님들을 위해 황제의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그러나 음식의 향연뿐만 아니라 이 신사들이 모두 수행하는 정치적인 업무들까지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때처럼 많은 횡수의 황제 알현과 회의가 조선 궁정에서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황제의 몸이 강건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황제가 너무도 침착하게, 강한 투지를 가지고 나쁜 게임에서도 항상 올바른 몸가짐을 지탱하려고 힘든 수고를 마다치 않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유럽에서 완벽한 기사라고 불릴 만한 분이 바로 황제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났다. 그러나 황제의 이 같은 높은 덕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태도는 그를 황제로 취급하지 않았다.

일본 사절단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들어와서 세운 모든 책략과 황제 앞에 등장한 모습을 살펴본다면, 이토를 훨씬 더 비중 있는 외교관이자 정치가로 간주해야 한다. 그는 외모에서부터 이미 비범함이 드러났다. 명백한 동아시아 얼굴형의 소유자로 회색빛의 뽀족한 턱수염이 절대 어울리지 않지만 남자답게 생긴 모습이 호감 있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의 노회함과

어우러진 얼굴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졌다. 일본인들은 일본의 비스마르크Bismarck라고 불렀다. 중간 키에 벌써 완전히 백발인 이토는 모든 가능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의 목표와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야전사령관의 눈빛에는 다른 이들을 제압하고 승리의 확신을 주는 뭔가가 있었다. 그가 대적하는 정치가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토의 부하 중에서 대단히 특출한 인물이 두 명 있는데, 스즈끼 남작과 이노우에 제독이다. 전자는 키가 크고 날씬한 미남으로 백발과 호전적인 검은 콧수염이 특이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반대로 이노우에 제독Admiral Ynouye은 별로 볼품없는 작은 체구이지만, 지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과 영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전형적인 일본인 얼굴이다. 이 해군 장성은 특히 러일전쟁 때 용맹한 지휘관으로서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당시에 벌써 이토의 수하에 속해 있었다.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의 대단한 달변 능력 때문이다. 외국의 지도자들 및 정치가들과 외교적 교류를 할 때 이 능력에 힘입어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다.

황제 측에서 이토와 그의 부하들에게 보여준 존경과 영예에 보답하기 위해, 이토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70명이 넘는 조선의 고관대작들과 고위급 관료들을 위한 연회를 성대하게 베풀었다. 이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일본인이 조선의 최고위층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베푼 이 연회는 훌륭한 유럽식 향연이었다. 물론 참석자 대부분이 서양 음식의 특징을 벌써 알고 있는 동아시아인이었다. 이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유럽의 식단과 와인, 그 중에서도 최고급 독일 와인과 프랑스 샴페인 정도는 내놓아야 했다. 연회 장소와 그곳의 정원까지 꽃과 조명을 가지고 호화롭게 장식했다. 홀과 살롱, 식당, 모든 곳이 각양각색의 꽃들—그중에서도 독일 국화—로 장식되었다. 그렇지만 조선과 일본을 상징하는 색상이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다. 연회

용 식탁의 만발한 꽃들과 이를 덮고 있는 노랑·빨강의 -비단 망사, 절묘한 빛을 비추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연회 장식의 하이라이트였다.

이것은 완벽하게 남성을 위한 연회였고 여성들은 여기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고위급 해군 장교들은 유럽식 의상인 연미복과 흰색 넥타이를 댔다. 유럽의 식사 자리에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마치 독일 고향에서 그랬듯이, 활기찬 주연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유럽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짙어졌다. 최고조의 환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궁중 악장 에케르트Eckert가 독일 음악을 연주했고 축제의 절정인 춤곡까지도 연주해 주었다. 물론 조선의 늙은 고관대작들과 일본의 야전사령관과 장군들이 춤을 춘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조선 황실의 아름답고 우아한 궁중 무희들이 춤을 추었다. 이 소녀들의 아름답고 우아한 몸동작이 유럽인들에게 완전히 낯선 리듬 속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동적인 한편의 그림이었다. 이 춤사위는 문명화된 서양의 춤 문화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우리의 맨손체조의 형식과 템포를 살짝 상기시켜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춤과는 유사성이 별로 없다.

연회는 이른 아침에 끝나고 극도로 흥분된 분위기와 유쾌한 기대감 속에서 서로 헤어졌다. 이토조차도 본인이 주관한 연회의 진행과 결과에 만족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다음 날 벌써 그는 일본 천황에게 보고하기 위해 대다수 부하를 서울에 남겨둔 채 도쿄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가 없는 동안에⁴¹ 서울에 남은 일본 각료들은 협상을 계속 해 나갔고 당시의 소식통이 나에게 알려준 것처럼 조선 각료의 일부를 매수하려는 음

41 을사늑약은 이토가 일본으로 귀국한 후가 아니라 이토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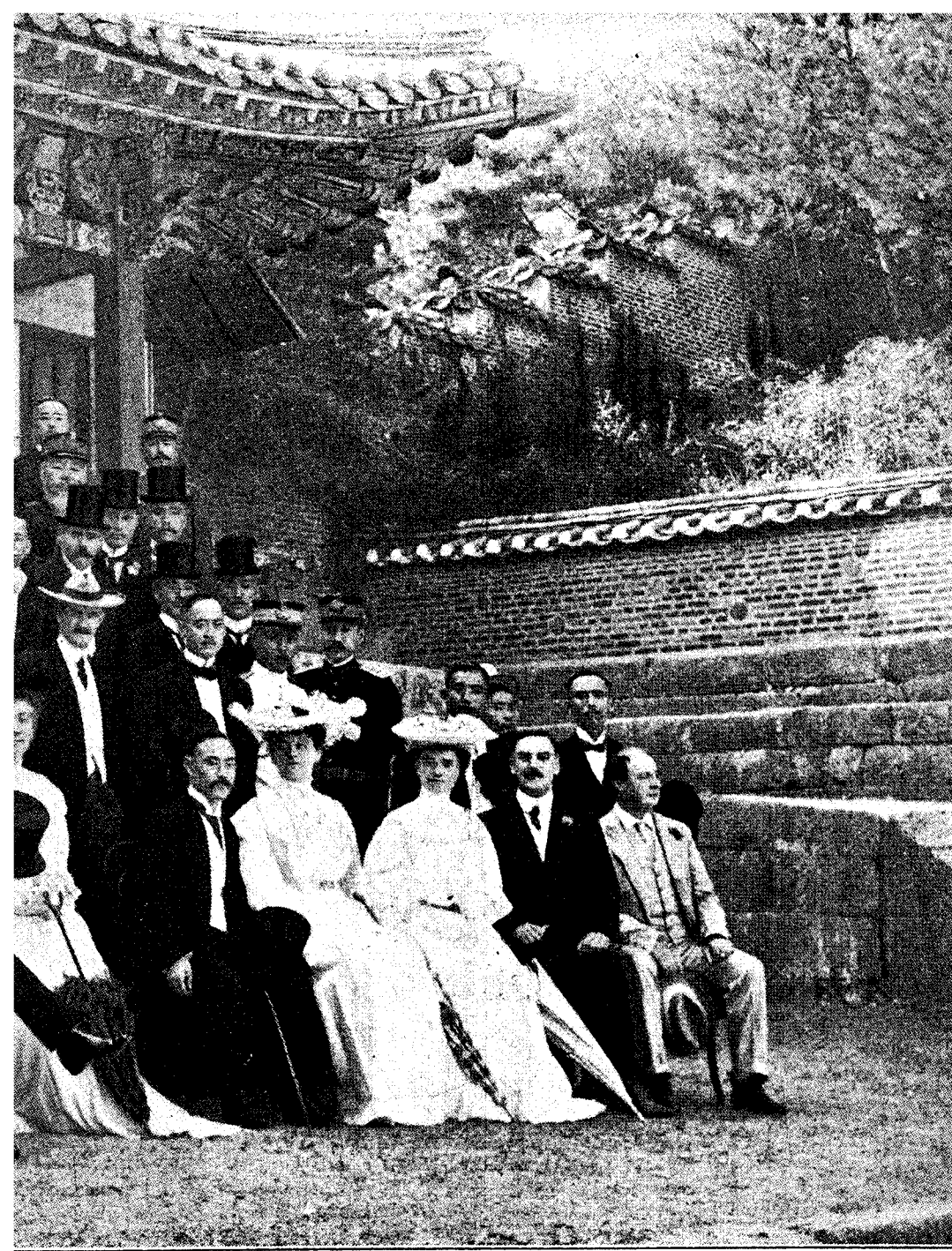


그림 33. 시해된 조선의 황후의 조카 민영환 장군(X)은 조선의 독립을 빼앗는 일본과의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조약이 체결되자 자결하였다.

모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의 참정대신 한규설(韓圭晄),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그리고 몇 년 전에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왕후(조선의 황제 청호는 최근의 일임)의 조카 민영환 장군은 일본의 조건을 거부했다. 일본의 조건은 대체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정립하고 황제 고종을 실제 정부로부터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은 허수아비 황제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특히 영향력 있는 이 세 명의 고관대작들이 일본과의 조약에 서명하고 동의하도록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해서 폭력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참정대신이 보관하고 있던 옥새의 소유권을 둘러싼 형식상의 쟁투가 반대편 세력과 참정대신 사이에서 벌어졌다. 일본인들이 옥새를 참정대신에게서 빼앗으면서 이 싸움은 끝이 났다. 그에 따라 이제는 참정대신의 서약 없이도 조약서가 작성되었고 그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고 그를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조약의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행정을 일본의 지배에 종속시킨다.
2. 일본의 상위 주권을 통해서 모든 중요한 안전을 결정한다.
3. 일본의 동의 없이 조선은 다른 나라와 그 어떤 형식의 협정을 맺을 수 없다.
4. 모든 외교 공관은 서울에서 도쿄로 이전한다.⁴²

42 을사늑약 5개항의 내용은 일본 외무성이 앞으로 대한제국의 대외관계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중개 없이 국제적 조약이나 계약을 맺지 못한다는 외교권 제한 조항(제1·2조)과 일본정부 대표로 한국 황제 밑에 1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 지휘 하에 기존 일본 영사가 담당하던 사무를 관장하는 이사관을 둔다는 제3조, 한일간의 현존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며(제4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증한다는 제5조로 이루어져 있다. 크뢰벨의 서술처럼 행정을 모두 일본에 종속시킨다는 일본이 상위 주권으로서 모든 중요 안전을 결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크뢰벨은 을사늑약의 결과로 설치된 통감부가 조약 내용과는 달리 외교 사무 외에 실제로 대한제국의 모든 행정을 장악해 들어가면서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했던 사실을 조약상의 내용으로

그러나 두 명의 고관대작인 박제순과 민영환의 서명도 이 조약서에 빠져 있었다.⁴³ 조국을 배신하라는 부당한 요구와 운명 앞에서 민영환 장군은 그의 심장을 찢었다. 회담이 있던 다음 날 밤, 그는 자결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토가 도쿄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며칠 뒤인 1905년 11월 6일, 이토는 황제와 알현하는 곳에서 황제에게 조약을 승인하고 서명하라며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나 황제는 “내 조국의 독립은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토는 황제 고종에게 조약 승인과 서명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토는 당시 내각 각료였고, 지금은 로마의 일본 대사로 파견된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다음날 조선의 모든 각료를 설득할 목적으로 아침 식사에 초대하라고 시켰다. 그런 다음, 황제가 배석한 작은 황궁 내에 있는 중명전(重明殿)에서 일본의 구상에 군주와 각료들이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번번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졌던 교섭에서도 일본 대신 하야시가 참여했다. 그러나 일본의 조건에 승복하도록 황제를 움직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절대 안 된다!”라는 단호한 말로 황제는 조약 승인과 서명을 계속 거부했다.

다음 날, 이토와 하세가와 장군의 지시에 따라 궁궐 수비대가 일본군으로 교체되었고 아무도 출입을 못 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 때문에 기가 죽

작하고 서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3 박제순은 을사늑약 당시 주무대신인 외부대신으로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와 함께 조약 문서에 도장을 찍은 장본인이며,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군부대신 이근택과 함께 을사오적으로 불리운다. 박제순이 처음에는 완강한 반대파인 참정대신 한규설을 따라 절대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하다가 완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크뢰벨이 잘못 서술한 것 같다. 민영환은 당시 내각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을사늑약에 반대 상소를 올리고 11월 30일 자결했다.



그림 34. 조선의 상류층 기념비
저자가 대원각사비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은 조선 각료들은 자신들에게 내민 조약서에 서명하는 데 마지못해 동의해 버렸다. 오직 조선의 참정대신 한규설만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에서 조약 거부 태도를 고수했다. 이 일로 인해 이 용감한 조선의 국가 각료는 자유를 강탈당했고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후에 유배지에 보내졌다. 그러나 이토가 조선에 대한 통감 권한을 실질적으로 넘겨받게 되고 얼마 후에 그는 사면되었다. 이로써 끝내 조선에 그림자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토는 황제 고종과 그의 충신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따를 것을 거부하는 것을 무시하고 곧바로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즉각 서울에 있는 일본 공사관 건물을 재정비한 뒤, 오래전에 벌써 이토가 대표자로 예정되었던 조선 통감부를 건물 내부로 이전시켰다.

다시 한 번 도쿄를 다녀온 후 이토는 즉각 조선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일본 천황의 칙령에 따라 그가 통감에 임명된 1906년 초에 와서야 조선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인수 작업이 뒤따랐다.

조선 사람들의 분노는 오래전부터 매우 컸었는데, 이러한 행정 조치가 공포된 지금은 최고 정점에 달했다. 그런데도 당시의 분노가 이토 개인과 그의 권력 하수인들에 대한 폭력 행동으로 번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토가 마련한 가혹한 예방 조치와 강력한 처벌 규정 때문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는 거대한 조선 사람들의 분노를 교묘한 외교적 술책을 써서 잠재우려고 시도했다. 그는 통감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의 수도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최대 규모의 국민축제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 축제는 규모가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독창적이었다. 축제 장소로 왜성대(倭城臺)가 있는 남산 정상과 그 주변이 선택되었다. 그곳은 벌거숭이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축제의 장식이 그곳의 매력 포인트를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 넓고 큰 천막과 가설된 관람석

이 녹색 장식과 천 가지 색상의 작은 깃발들과 이어져 축제 분위기가 느껴졌고 흥에 겨운 수천 명의 사람들의 휴식처로 제공되었다. 음악 연주단은 주로 애국심을 부추기는 노래를 멈추지 않고 연주했는데, 이 노래는 시대의 변화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돋우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선정되었다. 그러나 잔치를 애국주의적으로 만들어둔 것은 무엇보다 상당한 양의 조선의 전통 음식이었다. 정말 실컷 먹었다

그리고 분주히 돌아가던 축제의 풍경 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때 넓디넓은 축제 장소를 가로지르는 긴 줄에 매달린 수많은 제등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는데, 모든 것이 마치 동화 속 빛깔에 잠긴 것 같았다. 그리고 독일처럼 이곳에서도 그림엽서가 발행되었다. 그림엽서를 진흥시킬 특별 목적으로 일본의 군사 우체국이 축제 장소에 설치되었다. 통치권의 이양을 기념하는 축제를 국민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림엽서와 우표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그 날 하루만 유효하고 축제 장소에서만 보낼 수 있는 것이었다.

대략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천막에서 이토와 초대된 유명인사들, 그중에서도 외국의 외교관들을 위한 식사가 마련되었다. 이때의 좌석 배치도 대단히 독창적으로 지정되었는데, 유럽인은 일본 여성들과 일본인과 한국인은 유럽 여성들과 옆 좌석에 각각 앉게 되었다. 조선의 고관대각 중에는 단지 소수만이 참석했고 그들은 사실상 새로운 질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다.

나 역시도 특별한 영예가 주어졌는데, 이토와 마주보고 앉아 오랫동안 환담을 나눌 수 있었다. 여러 차례 방문한 독일에 대한 좋은 기억을 지니고 있던 이토는 독일인의 특성과 제도를 칭찬했다. 그것은 단지 독일 숙녀인 내게 대한 예의상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강하게 느꼈다. 그의 특



그림 35. 조선의 이정표(장승)

별한 관심사는 독일의 군대와 독일의 청결 및 질서 의식에 있었다.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독일의 수상 가운데 그가 특히 존경하는 인물은 독일 제국의 건국자인 비스마르크였는데, 그는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수완과 외교적 천재성에 대해 그는 극찬해 마지않았다.

축제는 모두 끝났다. 그리고 얼마 후 이토는 우리의 환담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칠보 화병 한 쌍과 최고급 일본 공예품을 보내왔다.